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 신앙과 삶

11+12  
NOV + DEC  
2022 vol.21



## 특집 양극화에 갇힌 공동체성과 기독교

사람 사이 김선옥 숭실대 철학과 교수

청년 시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문화로 세상 보기 한국 영화가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다루는 법

ISSN 2671-8731

# Contents

NOVEMBER + DECEMBER · 2022

## 시선

이상숭배가 될 수 있는 이념 추종 | 손봉호 02

## 편집장의 말

이념 중독과 양극화의 치유를 바라며 | 신국원 04

## 특집

### 양극화에 갇힌 공동체성과 기독교

우리 시대 기독교의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 김동춘 06

한국 교회의 이념적 양극화 | 장동민 08

한국 사회 양극화와 삼위일체 공동체성 | 김성원 10

생태·정의·평화를 실천하는 기독교 공동체 | 이도영 12

정치적 양극화를 위한 변론 :

당파적 공익과 비당파적 공익 | 이병주 14

양극화로 '트라우마' 입은 한국 사회의 회복 어떻게 할까 | 전명희 16

양극화 극복의 한 대안 :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는 교회 | 최경환 18

정치이념의 양극화와 경제 성장 | 강영호 20

## 사람 사이

김선욱 송실대 철학과 교수 & 학사 부총장 22

## 섬김의 자리에서

신앙과 학문 그리고 삶의 통합 | 최용준 26



2022. 11+12월호 | 제21호(통권 236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채민석	28
매일 주님 안에서 한결같이 씨름하며 사는 삶   조예성	30
청년일터이야기	
교육, 학습, 훈련, 그리고 순종   이경건	32
어느 청년의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운동   김영우	34

##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한국 영화가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다루는 법   강진구	36
미술을 보다	
벌어진 심연과 부드러운 심장   서성록	38

## 교회 路

포도나무교회 기독교 세계관 프로그램   한준희	40
소감문: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경찬	41

## 온전한 지성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4)	
- '공공신학'의 원조   신국원	42
추계학회 주목할 논문 요약	
세계관 개념에 관한 신학적 비판:	
칼 바르트의 신학을 중심으로   김진혁	44
교회 공동체의 법 이해와 법 준수   고세일	46
미로슬라브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과 문화명령   김욱	48

## 소식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이모저모	50
사무국 소식	52
관련기관 소식	53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 이상숭배가 될 수 있는 이념 추종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유명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은 카우보이 영화를 좋아했다 한다. 그의 추종자는 아니지만 철학하는 나도 마찬가지다. 서부영화에서는 착한 사람과 악한 놈이 확실히 구별되고, 착한 사람은 항상 이기고 나쁜 놈은 반드시 패하기 때문에 철학처럼 이것, 저것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상을 다 고려하려고 고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선과 악, 진(眞+)과 위(僞-), 부와 빈, 유식과 무식, 사(使)와 노(勞), 진보와 보수 등이분법으로 분류하면 세상 모든 것이 간결하고 선명해진다. 그러나 건전한 상식, 중산층, 개인사업자, 중도 같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한 것들이 끼어들면 선명성이 없어지고 문제가 복잡해져서 생각을 혼란케 한다. 어린이나 생각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이분법이 편리하고 흑백논리가 선명하다.

생각하는 것으로는 별로 뛰어나지 않은 한국에는 미국과 비슷하게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 빈부, 노사, 남녀, 세대 등의 양극화도 만만치 않지만, 이념의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거리다. 마르크스주의나 지식사회학은 사회적 상황이 이념적 성향에 반영된다고 주

장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최근 저소득자와 저학력자들이 고소득자와 함께 보수적이 되고 고학력자들이 진보적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고학력자가 유난히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식이 통하는 것 같지 않다. 민주국가이면서도 북한과 중국이 지척에 있는 것과 지역과 정당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이념 판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형태의 가족 독재와 위협적인 핵무기에 매달리는 북한이 우리 사회의 이념의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진보는 그저 경험과 생각이 미숙하여 '세상을 뼈뺌하게'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중복좌파'로 분류되어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고, 보수는 그저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 많고 고집 센 꼴통만이 아니라 정의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비도덕적'이고 매국적인 친미분자로, 폐기 처분되어야 할 쓰레기로 취급되고 있다.

이런 양극화가 공동체를 양분하여 단합과 구성원들 간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건강수준 세계 2위, 교육수준 세계 3위인데도 사회적 자본이 167

개국 가운데 147위일 정도로 상호불신이 심각한 데다가 이념의 양극화까지 가해지니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OECD에서 꼴찌에 가까운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희생, 용서, 양보, 관용이 포함되어야 할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계가 이념 갈등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민주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모두가 같은 이념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념 때문에 교단, 교회, 같은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서로 반목할 정도로 양극화되면 이념은 이미 위험 수준에 이른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가 가르친 사랑보다 이념의 위치가 더 중요해졌음을 뜻하고 이념이 '우상'의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갈라져서는 복음전파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즉 교회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념은 '사명(mission)을 가진 정치이론'이다. 마르크스의 유명한 '포이에르바하에 대한 주장들'의 11번째 항목, "철학은 세상을 다양하게 설명만 했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가 분명하게 말하듯, 이념의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거기에는 사명감과 확신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념에는 세상을 개혁하여 구원하려는 사명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유사종교의 성격이 있다. 이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이념에 근거해서 폭력행사를 감행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성경의 잣대로 이념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신 성경을 이용하여 이념을 정당화하면 그에게는 이미 이념이 우상으로 변질되어 있다 할 수 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낙태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Donald Trump)를 따르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념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조만간 웃음거리가 되어 사라질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이론이야말로 '객관적 이론'이고 기독교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주장은 '이념'이라고 확신했지만, 그의 이론은 나중에 이념의 전형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세상을 개조하기는커녕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만 가져왔다. 보수, 진보 이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목을 맬 가치는 전혀 없고, 영원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한국에서 이념 양극화 주범은 정치인들이다. 만약 보수, 진보 정당들이 없었거나 정당들이 표방하는 이념이 다른 것들이었다면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양극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므로 그들이 과연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념을 실제로 믿는지는 알 수가 없다. 북한의 김씨 독재자들이 사회주의를 믿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 정치인들도 권력 유지나 획득을 위하여 이념을 이용하고 있는데, 판단력이 부족한 시민들이 그들의 조작에 휘말려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어쨌든 영원한 진리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이념에 목을 매고 열을 올리며 서로 반목하는 것은 참으로 자존심 없고 부끄러운 처신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으로도 섬기고 있다.

# 이념 중독과 양극화의 치유를 바라며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양극화에 간힌 공동체성과 기독교’가 금번 학회의 주제였습니다. <시선>은 우리 사회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사명을 가진 정치이론’인 이념의 양극화를 가장 우려할 사안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런 현실에 분별없이 휘둘리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안타까워합니다.

<특집> 첫 글 김동춘 교수님도 기독교 내에 신학, 정치, 문화적 양극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보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맹목적 추종, 보수 교회의 극우적 성향, 그리고 문화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장동민 교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념 대립과 양극화를 우려합니다. 기독교를 ‘철 지난 이념’과 동일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신뢰 상실의 원인이며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오며, 신앙의 본질을 훼손함을 지적합니다. 김성원 교수님은 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상호 섬김과 복종의 일체적 연합을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하여 사랑의 공동체 회복에 앞설 것을 당부합니다.

이도영 목사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여 ‘공생하는 사회’ 형성과 ‘생태적 문명’ 회복,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통해 분열의 치유를 제안합니다. 이병주 변호사님은 사익을 추구하는 당파 싸움과 공익의 변증법적 긴장은 필요하지만, 상대를 죽이고 흠치고 거짓 증거

하고 선악의 심판자를 자임하지 않는 한계를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전명희 교수님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양극화 속에 승패로만 나누어진 “전쟁의 감각”으로 살기에, 공감 능력과 소통의 부재의 상황을 교회가 나서서 아픔을 함께하고 보듬어주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최경환 선생님은 양극화의 극복을 동의보다 ‘공감’과 합의보다 연대를 배양하는 ‘공감하는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고집불통에 비상식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교회가 민주주의의 덕목과 건강한 다원주의를 연습하는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한가를 묻습니다. 강영호 교수님은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2018년까지 수치가 감소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통계적으로 볼 때, 정치적 양극화가 1인당 GDP를 감소시키기에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한 방안임을 알려줍니다.

<사람 사이> 인터뷰는 정치철학자로 시민 활동에도 헌신해온 김선옥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소득, 교육, 고용의 불평등으로 인해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십니다. 교회간 격차 극복과 함께 전문인들의 섬김을 활성화를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간극도 극

복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합니다. <섬김의 자리>엔 동역회의 오랜 동역자인 최용준 교수님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동역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과 해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발전의 필요를 피력합니다.

<청년 시론>에선 채민석 형제가 목회자의 길 대신 공학자의 길을 택하게 된 과정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나눕니다. 조예성 형제도 단지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겪고 성숙해지며 연구자로 훈련되는 과정을 진솔하게 적었습니다. <청년 일터>엔 김영우 형제가 캠퍼스 선교단체 '익투스' 활동 속에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며 나눈 경험과 현재 좌우로 양극화된 상황은 천당을 비전으로 삼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경건 형제도 연구실을 떠나 논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새로운 경험 속에 산상수훈의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던 바를 나눕니다.

<영화를 보다>에는 강진구 교수님이 <발신 제한>과 <학교가는 길>에 대한 해설을 통해 한국영화가 양극화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추태화 교수님과 더불어 담당해주실 것입니다. 서성록 교수님의 <그림을 보다>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영원의 흔적'을 찾고자 애썼던 빈센트 반 고흐의 <자장가>가 주는 위로를 전해줍니다.

<교회로>에선 포도나무교회 한준희 목사님이 10주간 프로그램인 '킹덤 익스프레스'에 대한 소개와 고등학생 이경찬 형제가 고민하던 문제의 해결을 받았다는 참여 후기를 실었습니다. 9주간의 이론강의를 2박 3일에 걸친 수련회로 매듭짓는 형태의 세계관 캠프의 구성이 눈길을 끕니다.

<온전한 지성>에는 카이퍼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금번 학회에서 눈길을 끈 세 편의 논문이 소개됩니다. 김진혁 교수님은 칼 바르트가 독일 '문화개신교'에서의 기독교의 세계관화가 정치 이데올로기화되어 복음의 사랑 대신 갈등과 투쟁의 도구화될 위험을 비판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 전반에 의미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고세일 교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김옥 전도사님은 볼프의 노동관과 문화명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령론적 노동관과 기독교 세계관에서 다뤄온 문화명령의 종말론과의 연관을 통해 총체적 구원을 지향하는 논의를 펴니다.

끝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굳어져 가는 2022년도 이렇게 저뭉니다. 새해에는 더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주신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늘 애써 좋은 소식지를 만드는데 함께 헌신해주신 필진과 편집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 우리 시대 기독교의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김동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 조직신학 교수)

우리는 흔히 양극화가 빈부 격차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이데올로기의 양극화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보면 기독교 내부에 형성된 양극화 현상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신학적 양극화요, 둘째는 정치적 양극화, 마지막으로 문화적 양극화가 그것이다.

먼저, 신학적 양극화는 보수신앙과 진보신앙, 혹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편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 전반의 신앙 구조에는 경건주의 모델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탓에 신학적 보수주의가 강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신교 신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더 요구받고 있다. 예전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적 정직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가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기독교 교리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라는 맹목적인 신앙보다 그 신앙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가를 질문하는 풍토가 많아지고 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지금 개신교 신자들이운데 성서문자주의, 지옥 형벌론 등을 노골적으로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보수적인 관점에서 믿어왔던 성경관, 속죄관, 종말관 등 기독교 신앙 전반에 걸쳐 '보수-근본주의' 신앙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으로 비난받는 형국이 되

고 있다. 반대로 '진보-자유주의' 신앙은 열려 있고 관용적이라는 이유로 호의적인 평가 일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한국 교회의 양극화에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학적 양극화가 주된 쟁점이다. 이 신학적 양극화에서 표면적으로는 근본주의가 대세인 듯 보이지만, 개신교 신앙 내부의 흐름을 관찰한다면, 근본주의는 우호적이지 않아 보이고 점차 퇴조하고 있으며, '진보-자유주의' 기독교로 신앙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신학적 양극화의 대결 양상을 지켜보면, 서구 특히 북미 기독교는 전반적으로 복음주의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국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앙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신앙을 선호하는 기독교 그룹은 자유주의 기독교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신앙관과 신학적 관점에서 '맹목적'이란 수식어는 근본주의 진영이 아니라 '진보-자유주의' 진영에게 더 어울리는 용어인지 모른다.

두 번째는 정치적 양극화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정치관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 한국 교회 양극화 현상에서 정치적 양극화야말로 가장 극렬한 형태인데, 그것은 교회의 정치참여 문제를 둘러싼 것이다. 보수교회는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유신 시대와 그 이후 군부 정권을 향한 교회의 정치참여를 반대했다. 보수교회는 이상하리만큼 독재정권과 반민주 정권에 대해서는 협력적이고 지지하는 정치관을 취했다. 반면 7~80년대 진보교회는 반독재 저항운동에 강렬하게 참여하였다. 이 시대는 정치참여를 화두로 하여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양극화가 극심한 때였다. 그런데 정치참여와 정교분리의 양극화 대결구도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교계에 '뉴라이트'(New Right) 운동이 등장하면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수기독교가 앞장서서 보수정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우파 기독교가 정치세력화되어 등장한 것이다. 오늘에 와서 "보수기독교는 정치참여에 소극적이고, 진보기독교는 정치참여에 적극적"이라는 옛 공식은 깨어졌다. 더구나 최근 극우적 정치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보수-근본주의 기독교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교회의 선교적 책임으로 천명한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 1974), 정치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실천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히틀러 전횡에 저항한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정치윤리 등을 자신들의 논거로 삼고 있는 현실 앞에 진보 복음주의 진영이 매우 당혹해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회 개혁적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사회참여와 책임 윤리의 신학적 토대라고 생각해 왔던 로잔언약과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 사회의 보수 기독교 정치에 활용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문화적 양극화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양극화란 지금은 잊힌 경향이 있지만, '낮은 울타리' 같은 기독교 문화 단체에서 헤비메탈이나 영화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서 시작하여 창조론

과 진화론에 대한 치열한 논쟁 등을 말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차별금지법, 동성애, 성 소수자 등의 문제로 치열한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현상은 다름 아닌 '문화전쟁'(cultural war)인 것이다. 평소 설교나 행동과 태도에서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목회자로 인정받아온 온 보수 교단의 대표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팻말을 당당하게 들고 시위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 문화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결혼관이나 혼전 성관계, 문신(tattoo) 등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전통적인 사고와 얼마나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양극화를 극복하는 대안과 방향은 무엇일까? 그동안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신학적 사고와 사회관과 정치관, 그리고 문화관을 다지기 위해 흔히 통용되었던 기독교 세계관의 논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오늘의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줄 수 있는 좀 더 포용적이면서 친척적인,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형성할 수 있는 신학과 인문학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더 다양한 우물에서 길어 올린 신앙의 자양분을 섭취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동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 조직신학 교수이다. 총신대 신학과 학부와 신학대학원(M.Div.)을 나와 독일 하이델베르그대학교에서 신학박사(Dr. theol) 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사회적 책임의 신학>(2009), <전환기의 한국 교회 : 복음과 사회적 제자도를 위한 신학>(2012), <기독교 윤리의 숲>(2021)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노동하는 그리스도인>,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칭의와 정의>, <탈 교회: 탈 교회 시대, 교회를 말하다>(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학술총서, 2) 등이 있다.

# 한국 교회의 이념적 양극화

장동민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역사신학)

한국 사회를 양분화한 이념대립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1990년 어간 신학적 보수/진보 대립이 정치적 보수/진보 대립과 맞물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1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출범함으로 진보적 연합기구인 한국교회협의회(NCCK)와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 ‘뉴라이트’ 운동이 주도한 햇볕정책 반대 시위를 시작점으로 신학적 보수와 정치적 보수가 맞물린 기독교 보수주의가 한국 사회 전면에 등장하였다. 최근 들어 SNS와 유튜브 등 매체의 알고리즘의 작동방식으로 분열은 가속화되어 간다. 정치적 이념과 신앙의 유착은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폐해를 가져왔다.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종교와 이념의 동일시는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기독교 신앙은 정치이념의 기초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념으로부터 초월한 것이다. 이념에서 초월한 신앙은 이념과 정권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도 있다. 또한 변화된 세계에서 새로운 이념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철 지난 이념과 기독교 신앙을 동일시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이념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대에 역행하는 반동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들은 기독교에 등을 돌려 더 이상 신뢰를 주지 않는다. 기독교가 사회에 줄 수 있는 모든 풍성한 그리스도의 선물이 전달될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다.

둘째, 성도들 사이의 이념적 갈등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매스컴의 보도만 보면 마치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이 극우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20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의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 31.4%, 중도 39.8%, 보수 28.8%로 나타났다. 즉 일반 성도들의 이념 지형은 일반 국민과 비슷하지만, 고연령층이나 지도층은(이 둘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교인들 간에, 혹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념적 갈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그룹 모임에서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다툼이 생기곤 한다. 목소리 큰 다수파가 대화를 지배하고 소수파는 묵묵히 듣고 있지만 다음부터는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코로나 시대 다수의 목회자는 열심 있는 성도들의 극우파 집회 참여 강권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성도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30~40대의 경우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하고 동시에 진보적 성향이 강한데, 이 두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교회를 떠난 성도는 다른 교회를 찾는 대신, 인터넷 예배에 만족하든지, 가나안 성도가 되든지 혹은 아주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않는데, 이것이 교회학교가 약화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기독교인의 이념적 양극화는 신앙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을 훼손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가르침은 기독교의 기초적 가르침의 하나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죄 사함을 갈망하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하여 자기도 그 악의 일부임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게 되면 죄의식이 약해진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악의 원인을 현 정부나 이전 정부의 탓으로 돌린다. 서로에 대하여 험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비난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하여서는 자연스레 정의의 편에 선 사람으로 생각한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 보수든 진보든 이념적 편향성을 띤 사람들의 어투는 거칠고 눈빛은 사나우며 그 행동은 오만하다. 이들의 기도는 상대를 없애달라는 간구이며, 성경 구절은 자기 이념을 정당화하는 증거로 사용되며, 설교는 상대에 대한 비난과 저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현상이 한 세대 이상 지속되면서 한국 교회의 영적 수준은 상상 이상으로 하락하였다. 과연 이념적 양극화를 넘어설 길이 있을까?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며 사회 통합에 도움을 줄 자원이 남아 있거나 한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깊이 숙고하는 데 해답이 있다. 촛불을 든 젊은이나 태극기를 든 어르신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차별과 혐오가 설 자리가 없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념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로마제국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노예와 자유민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장벽은 대한민국의 보수/진보의 장벽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았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복음이 이 장벽들을 무너뜨렸음을 알았다.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받은 성도들 사이의 차별 없는 교류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다. 그들 사이에 화해의 영이 일하시기도 있다. 사도바울의 이 공동체 경험은 갈기갈기 찢어진 로마제국을 치유하는 지혜와 용기의 원동력이 되었다. 법과 질서에 의존하는 통합, 잠시 가상 세계를 꿈꾸게 하는 월드컵 의 한 하나 됨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중심에 품은 통합 말이다. **FAITH & LIFE**



#### ✍ 글쓴이 장동민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역사신학 교수이자 교목부총장이다. 서울대학교 철학과(B.A.)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으로 신학석사(Th.M.)와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남부전원교회와 백석대학교교회(서울) 담임목사를 역임했으며, 저서로 <박형룡의 신학연구>, <신학의 심포니>, <박형룡>, <대화로 풀어본 한국 교회사 1, 2>, <구약의 기도>, <우리 시대를 위한 십계명>,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 등이 있다.

# 한국 사회 양극화와 삼위일체 공동체성\*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다.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 대립의 구도를 따라 국민은 거의 정확하게 양분되어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반목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그 깊은 골짜기를 따라 지역감정과 남녀 간의 골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 있다. 경제적으로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1대99의 사회로 갈려 있으며 그 경제적 골도 더욱 깊어져 가고 있어 거대한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거기에 시대의 정신인 개인주의적 인본주의나 개인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는 젊은이들이 모든 공동체적 담론을 거부하게 만들고 대면적 모임을 거부하게 하면서 고립된 개인으로 몰아간다. 여기에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사회,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사회에 바람직한 공동체성을 다시 도입할 수 있을까? 갈등을 줄이고 증오와 대립의 거대한 힘들을 순화시키며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재발견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인

삼위일체는 특별한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각 위격이 지닌 인격적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발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는 가운데 참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인격적 사랑을 통한 연합의 존재 양식을 잘 설명하고 있는 현대신학의 관점으로 사회적 삼위일체론 신학을 꼽을 수 있다.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동방교회의 삼위일체 신학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하나님의 각 위격이 가진 인격적 주체성과 자유로부터 자발적인 섬김과 복종을 통한 일체적 연합을 설명한다. 또한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러한 삼위일체적 사랑의 존재 방식이 인간에게 부여되었으며, 인간은 이와 같은 인격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회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증거한다. 인간의 사랑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두 가지 대명령이다. 이 사랑의 명령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

\* 이 글은 필자의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2022.10.29. 서울 백석대) 주제 강연 “한국 사회 양극화와 기독교의 삼위일체 공동체성”의 내용을 간략히 인용하고 소개한 것이다.

우신 사랑의 공동체라고 가르친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인간 공동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상호 보완적 관계성을 통해서 서로를 온전케 하며, 자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하나의 모형이 된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됨을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양식을 극복하고 형제와 자매로서 진정한 사랑과 나눔과 예배의 공동체 양식을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적대적으로 갈라진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들 안에서 사회적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촉매제로 교회를 사용하신다.

기독교가 증언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인격적 사랑의 공동체성은 오늘날 인류와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극심한 양극화와 대립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로, 기독교가 제시하는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의 동시적 조화의 원리는 모든 사회적 관계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공동체성의 방향을 제시하며, 또한 이 원리는 모든 사회적 관계와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판단기준과 시금석이 된다.

둘째로, 기독교는 인간 전체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인간성이 훼손되고 근본적 결함을 가지게 되었음을 예언자적으로 증거한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기독교의 분명한 증거는 인간의 사회성 역시도 이러한 타락과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기독교는 인간사회나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모든 낙관적인 견해들을 정당하게 거부한다. 동시에 기독교는 사회 지도자들과 제도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겸손과 관용을 요청하며, 대화적이고 상생적인 자세를 요청한다. 더 나아가 기독교는 권력을 나누고 상

호 견제하는 민주적 권력분립의 제도를 통해 결함이 있는 인간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적 대안을 요청한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인간의 사회가 인간의 죄성에 대한 현실적 인식에서 출발해서 겸손과 상호견제를 통한 온전한 인격적 사랑의 공동체성을 지향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들이 그 길에서 참된 모범이 될 것을 요청한다.

셋째로, 기독교가 제시하는 원형적인 인격적 공동체성은 하나님의 창조원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향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성 삼위 하나님이 사회 속에서 주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사회를 삼위일체적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회적 노력이 무너지지 않게 있는 인류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학부(B.A)와 신학대학원(M.Div.)을 거쳐, 미국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MATS, M.A., Ph.D.)에서 철학적 신학과 종교철학을 공부했다. 저서로 <21세기를 움직이는 신학포인트>, <구원의 허리를 동이고>, <과정 속에 있는 성령신학>,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하다>, <성령론>(공저) 등이 있다.

# 생태·정의·평화를 실천하는 기독교 공동체

이도영 (더불어숲동산교회 담임목사)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62명이 하위 50%인 세계인구 39억 명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상위 10%가 총 가계 순자산 74.5%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순자산의 1.1%를 갖고 있다. 상위 1%의 부자들은 미국 내 순자산의 35.4%, 금융 자산의 42.1%, 연 소득의 17.2%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것이 대부분 상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글항아리, 2014)에 의하면 현대 자본주의는 자본을 통한 소득 상승률이 임금을 통한 소득 상승률보다 크다. 노동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번다. 피케티는 현대 자본주의가 세습사회임을 보여주었다. 엘리트 계층이 일해서 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통해 부를 획득하고 있다.

문제는 부만이 아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도 불평등하다. <재난 불평등>(동녘, 2016)을 읽어보면 재난이 불평등하게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책의 부제가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인 것처럼 사회적인 불평등은 재난도 불평등하게 만든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제 기독교가 희년정신을 발휘하여 대조 사회·대안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필자가 이전에 쓴 책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새물결플러스, 2020)와 현재 집필하고 있는 <탈성장교회>의 내용을 함께 이곳에 소개하

기를 원한다.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여 ‘공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기본자산·최고임금 등을 고민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한마디로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하거나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교회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라”는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기본소득’을 지지해야 한다. ‘기본자산’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야 한다. 토마 피케티도 <자본과 이데올로기>(문학동네, 2020)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모든 젊은이에게 종자돈을 주자는 도발적인 주장을 내놨다. 25세가 되는 모든 남녀에게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의 60%인 12만 유로(약 1억 6천만 원)를 지급하자고 했다. 이것은 구약의 땅 분배 신학을 구현하기 적합한 모델이라 생각한다. ‘최고임금’은 원칙적으로 최고임금 이상의 소득을 인정하지 않거나 최고임금 이상의 소득을 인정하되 그것에 100% 최고과세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샘 피자개티(Sam Pizzigati)는 <최고임금>(루아크, 2018)이라는 책에서 최고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비율을 정함으로써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산층을 확대하고 불평등

의 구조를 해소하도록 만든다. 불평등을 일으키는 경제를 '바꿀 수 없는 상태'이자 '주어진 상태'로 간주하고 재분배 정책을 나중에 퍼지 말고,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부의 '사전분배'를 통해 부의 불평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교회는 이상의 가치를 공동체 내에서 현실과 형편에 맞게 먼저 실천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교회는 창조신앙을 회복하여 '생태적 문명'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한다. 기후변화가 코로나19를 낳았고 기후 위기가 '인류 멸절'로 치닫고 있기에 생태 친화적 문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교회부터 창조와 구속을 통합하는 복음의 총체성을 회복하여 문명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녹색 교회·생태 교회·기후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선 사회가 성장주의를 버리고 GNP가 아닌 국민 총 행복의 가치 기준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야 하고, '에코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자급적 관점에서 소국과민(小國寡民)의 민주적 마을을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하며, 물질이나 비물질적인 것을 인간 집단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별한 사회관계 양식인 '커먼즈'(commons)를 넓혀가야 한다. 사회에서 깊게 고민하는 '그린뉴딜'과 '동물권'과 지구정치(cosmo-politics)에 대한 고민까지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탈성장' 담론을 받아들여 문명의 전환에 대해 고민하며 공유교회와 탈성장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로컬의 미래'를 꿈꾸며 특정 지역과 골목에 머물고 싶은 마을과 생태 마을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인간 향상을 꿈꾸는 '트랜스 휴먼'이 아니라 상호의 존성을 인정하는 포스트 휴먼 사회를 세워나가야 하며, 지구 돌봄·마을 돌봄·이웃 돌봄을 하는 돌봄 사회·돌봄 마을을 만들어가는 데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가장 강하고 넓은 지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교회야말로 이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평화의 가치를 통해 극한 분열로 치닫고 있는 사회를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유럽과 영미의 모습을 보며 이제 서구와 동구의 통합만이 아니라 서방과 동방의 통합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자유·평등·박애의 한계를 드러냄으로 오리엔탈리즘의 종언을 불러왔고 '리-오리엔트'가 도래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이야말로 동방을 대표하는 중국과도 다르고 서방을 대표하는 미국과도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발견하였다. 교회는 마른 뼈의 환상과 두 막대기의 환상을 가슴에 품고 분열된 땅을 치유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한다. 신냉전과 좌와 우의 분열,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와 MZ 세대의 갈등, 심지어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는 미학적 삶과 중용의 삶을 통해 양쪽을 모두 아우르고 지나치게 의롭거나 악하지 않도록 하면서 '상식의 중간지대'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좌와 우를 아우르고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와 MZ 세대를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대녀'에게 공통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대남'들에게 사회학적 파상력(破像力)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이도명

화성시 봉담에 있는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인 "더불어숲동산교회"(예정활동)의 담임목사이다. 저서로는 더불어숲동산교회의 신학과 사역을 담은 <페어 처치>(2017), 영성의 두 갈래 길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성자와 혁명가>(2019),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2020) 등이 있다.

# 정치적 양극화를 위한 변론 : 당파적 공익과 비당파적 공익

이병주 (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대표)

## 변론 하나. 호모욕쿠스 - '욕'해야 사는 인간

사람은 욕을 하고 산다. 욕두문자 욕을 하든 점잖은 말로 비판을 하든 우리는 모두 욕을 마음과 입에 달고 산다. 욕에는 남을 욕하는 것, 세상을 욕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것이 있다. 욕의 주체에도 개인적 욕과 집단적 욕이 있다. 정치는 다른 정견의 집단끼리 욕하며 싸우는 것이요, 몇 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는 국민들이 패를 나눠 벌이는 주기적 욕 잔치이다. 집단적 욕이 농축되면 정치적 양극화가 나타난다.

## 변론 둘. 당파싸움이 나쁘다는 오해

상식적인 말의 상당수는 옳지 않다. "당파싸움은 나쁘다"라는 생각이 그렇다. 모든 사람이 균등하다면 당파도 필요없고 싸움도 필요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동등하거나 균질하지 않고, 경제·정치적으로 여러 다른 이해관계 속에 존재한다. 그 다른 이해관계만큼 당파가 있고 정파가 있고 다른 정치적 의제가 있다. 따라서 당파적인 논쟁과 분쟁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있는 것이 좋다.

한 집단, 정당이 보수, 진보를 아울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아니오"이다. 국가의 이익과 노동자의 사회주의적 이익을 통일시켰다는 히틀러의 독일국가사회주의노동당은 민족의 이름으로 독일 민족 전부를 동원, 역사 최악의 집단적 범

죄를 저지르게 했고, 부자 계급을 없애서 '평등하고 동등한 만민의 이상사회'를 만들려던 소련 공산주의의 시험은 처절하게 실패했다.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삼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치적 원수와 의 공존'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능해진다. 공동체 사회 안에서 우리는 정치적 원수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어떻게? 꿀 보기 싫지만 참고 견디며, 죽어라 욕하면서도 해치지는 않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 변론 셋. 당파적 공익과 비당파적 공익

민주주의에서 50대50 또는 40대60으로 대립하는 당파적 견해는 각각 그 비율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 이익과 합리적 요구를 반영하는 '당파적 공익'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경기에서 각 팀의 '승패'는 50대50의 당파적 이익을 가지나, 경기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양 팀 모든 활동을 가능케 하는 100%의 '비당파적 공익'이 된다. 민주주의 선거의 공정성, 적법절차의 준수는 '당파적 공익들' 사이에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더 큰 차원의 '비당파적 공익'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파적'이라고 해서 '사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엄연한 '공익'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 존재하는 계층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사익'이 아니고 집단적인 '공익'을 주장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노동조합의 노동쟁의를 '사익'으로 취급하고 배척하고 금지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노동삼권은 헌법 제33조가 인정하고 있는 헌법적인 '당파적 공익'이기 때문이다. 성장과 효율성을 주장하는 보수 쪽의 '당파적 공익' 주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수의 논제는 기득권의 별거벗은 이익 추구로 보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안정과 성장의 요구에는 '인간의 애처롭고 끈질긴 생존 욕구'와 관련하여 필수 불가결해 보이는 요소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파적 싸움'과 '당파적 공익'이 존재하면서 대립하고 통합되는 변증법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놓인 자리와 자기의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의 주장을 떳떳하고 투철하게 주장할 자유와 권리와 의무와 사명감을 가진다. 내 주장이 100% 옳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의 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다. 여기에 당파적 공익의 거대한 자유가 있다.

### 변론 넷. 당파적 공익에도 한계가 있다

당파적 이익의 주장에도 '선'(線)을 넘어서는 안 될 신앙적 및 사회적 한계는 있다. 그 선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과 그 역사적 성취인 민주주의 헌법 제도에 안에 새겨있다.

'죽이지 말라'(제6계명), 당파적 공익의 주장은 '내가 살기 위한' 정당한 노력이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니 총알로 죽이지 말고 투표로 싸워라(민주주의 선거제도). 이것이 당파적 공익이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선이다. '흠치지 말라'(제8계명), 계층 간에 경제적 이익은 팽팽하게 대립하며 서로가 상대방을 도둑이라고 욕한다. 나(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남(그들)은

다 도적이 된다. 과연 그럴까, 나(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정치적·경제적 노력이 다른 계층의 경제적 권리와 일용할 양식을 해치는 도둑질이 되지는 않을까? 이것을 자문하지 않는 당파적 이익은 쉽게 당파적 절도로 추락한다. 이것이 당파적 공익이 넘어서는 안 될 두 번째 선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제9계명), 당파적 대립의 감정이 농축되면 상대 진영에 대한 집단적 욕과 공격이 난무하게 된다. 우리는 본성상 욕해야 사는 인간이니 세상에서 집단 간의 욕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욕에는 한계가 있다. 정당한 자기 주장과 자기변호는 허용되는 정의이지만, 이것을 넘어 '이웃에 대하여 거짓된 증언과 거짓된 심판을 하는 것'은 세상의 법정을 넘어 하나님의 법정에서 반드시 계산해야 할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당파적 공익이 넘어서는 안 될 세 번째 선이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창 3:17). 사람이 스스로 선악의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첫 명령이다. 아담과 이브의 잘못이 인류의 원죄가 되어 우리는 모두 매일, 매달, 매년, 아니 평생 다른 사람과 집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선악과 중독 증상에 시달린다. 일반 사회인들이 정치적 선악과에 중독되었다면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선악과와 종교적 선악과를 함께 복용한 합병증으로 더욱 거칠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 "너 자신을 돌아보고 결코 하나님의 심판자 자리에 앉지 말라."(약 4:11) 이것이 당파적 공익이 넘어서는 안 될 네 번째 선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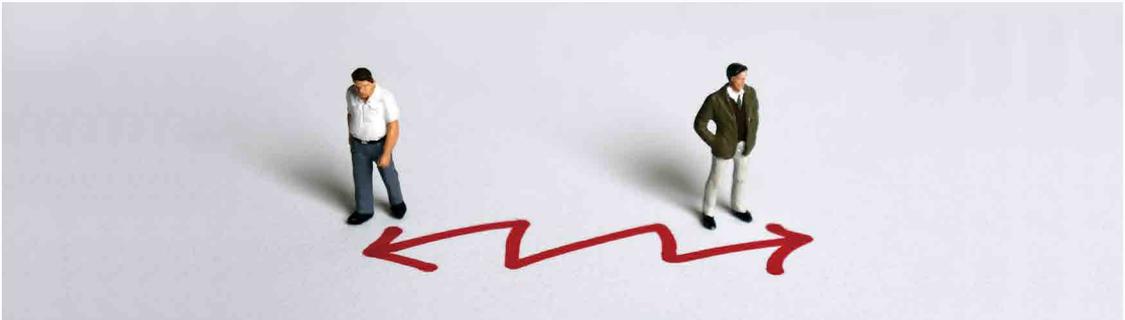


글쓴이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이자 26년 경력의 현직 변호사이다. 서울대 물리학과 학부, 하버드대 법률전문대학원(LLM)을 졸업했다. 현재 평신도 대종단체인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옥쿠스: 욕해야 하는 인간>, <욕하는 기독교, 욕먹는 기독교>(평신도의 발건 개정증보판), <기독교와 법에 대하여> 등이 있다.

# 양극화로 ‘트라우마’ 입은 한국 사회의 회복 어떻게 할까

전명희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세월호 사건 이후 기성세대의 공감 능력과 소통의 부재라는 징후를 포착하면서 필자는 근현대사에서 한국인이 경험한 트라우마의 집단적, 역사적, ‘세대전이적 특성’\*에 관한 글을 저널에 실은 적이 있다. 한 개인의 삶으로 볼 때 트라우마 경험 이후 이를 충분히 다루고 상실에 대해 애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허락되지 않을 때 사건에 대한 재경험, 감정적 각성, 기억과 감정의 회피, 지나친 편향된 시각으로 자기에 대한 온전한 감각을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서 무기력하고 우울해진 사람들은 이분법적 사고나 과잉 일반화 등의 인지적 오류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한쪽으로 ‘귀인’(歸因, attribution)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또다시 한국 사회가 슬픔과 아픔 속으로 직면하는 ‘이태

원 참사’(2022.10.29.)를 경험한 직후이며, 우리 사회가 조금은 성숙했다고 여기지만 정치를 포함하여 여전히 편 가르기와 ‘흑백논리’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금하기가 어렵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식민, 전쟁, 분단, 민주화 등의 일련의 경험들은 일종의 ‘빅트라우마’로서 한 인간으로 볼 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를 돌아보고 회복할 기회도 없이 우리는 잘살기 위한 생존과 무한경쟁으로 뛰어들었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그러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과 같이 사회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취약한 감정 체계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집단적으로 경험한 트라우마는 ‘세대전이적’ 특성을 갖게 되는데, 즉 과

\* 본 글은 전명희(2016), “근현대사에서 한국인이 경험한 트라우마의 집단적, 역사적, 세대전이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4), 231-254를 일부 차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학문적 글쓰기가 아니라 참고문헌을 따로 적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자료는 위 논문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거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 체험적으로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후세대들도 비슷한 반응에 휩쓸리며 공동체 전체가 병리적 현상으로 극단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급성 증상이 아닌 역기능적 현상이 사회체계 속에 안착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방식을 보이는데,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대학살의 직접 경험이 없던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자녀들도 상당히 비슷한 증상이 내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생존자들의 자녀에게 전수된 고통의 기억들은 '경험 없는 기억들'로 경험과 기억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게 된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후 새로운 경험들이 삶에 통합되지 못하고 갇혀 상상이 멈춰버리고 되면, 위협에 대한 예민한 반응은 우리 신경계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조그만 일에도 불안으로 날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안정화되지 못한 채 극복할 겨를도 없이 생존으로 내몰렸던 부모 세대의 처리되지 않은 아픔과 갈등, 불안과 무기력이 세대 간에 고스란히 전수되는 모습을 우리에게서도 보게 된다. 이는 오히려 직접 경험자들보다 더 큰 무기력감을 주는데 인과 관계를 잘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전쟁 세대가 지나가고, 부유해지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아무는 회복 탄력성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더 암울해졌다. 어찌면 다루어지지 않은 고통과 상실들은 여전히 답을 찾아서 희생양을 제물로 바쳐야만 끝날 것처럼 서로 으르렁대며 편 가르기를 하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적대적 대치, 진보와 보수의 끝없는 정쟁, 남과 여의 혐오, 금수저와 흙수저 등의 편 가르기와 비난하기를 동원해서 본질보다는 방어에 충력을 기울이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본질을 다루는 것은 진짜로 아프지만, 치유로 가는 온전한 고통 이후 회복을 가져오지만,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외면하는 방어적 고통은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의미

가 없이 핵심을 피해가는 방식이다. 상식이라는 공동 이해를 구축하기보다는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패배한다는 아직도 전쟁의 감각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기독교 공동체는 역사가 지닌 아픔과 고통에 대해 진지함보다는 기능주의적이고도 손쉬운 길의 한쪽 편에서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반성해보아야 하겠다. 사회체계의 일부로서 교회도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확장되어왔다. 그러나 보다 큰 영적 세계의 힘에 의지하여 고통과 아픔을 받아내고 공감하는 안전한 장소로서 위로하기보다는 닫힌 체계로서 방어적 형태의 모방인 분열과 흑백논리에 익숙한 모습으로 오히려 기독교의 성장조차 한쪽에 기대어 이분법적이고 율법적인 방어를 답습해 온 건 아니었을까. 이제는 교회가 이러한 아픔을 담아내고 함께 애도하고 공감하는 보듬어주는 공간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지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트라우마로부터 수용, 용서, 변형, 창조적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본질을 벗어나 떠도는 아픔을 끌어안기 위하여 기독교공동체는 지난 시절 성장을 그리워하며 더 뛰려고 하기보다는 잠시 그 아픔에 머물러서 돌아보아야 하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의 참된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그 경험을 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전명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Ph.D.)와 상담코칭(박사수료)을 공부하였다. 주전공은 가족복지와 상담이며 통일시대의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과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및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포항침례교회 집사이다.

# 양극화 극복의 한 대안 :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는 교회

최경환 (공공신학자 / 인문학 &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 연구원)



몇 년 전 ‘기독교학생연대’라는 단체에서 나에게 ‘기독교 안에 정치적 우파와 좌파가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강연을 부탁했었다. 주최 측의 강연 취지는 “어떻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들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다. 같은 교회,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은 천차만별이고 극단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교회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교회에서는 정치에 대한 어떤 가이드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성도들은 그냥 알아서 각자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고 알아서 활동하면 된다는 것인지, 이런 쉽지 않은 질문이었다.

나 역시 공공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그때마다 참 난감하다. 나라고 딱 부러지는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는 정말 금기시된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누군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괜히 좋았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하고,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게 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다. 나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말을 섞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치적 양극화와 편향성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지역적 편견이 더해져 그 간극이 더욱 벌어졌다. 정치적 양극화로 분열과 증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정치철학자들은 철학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심에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합의와 타협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소극적인 민주주의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

동선과 좋은 삶을 향한 열정을 끌어내야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대 미국을 대표하는 교육 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파커 파머(Parker J. Palmer)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의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습관, 그 습관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열망이 중요하다.

취향이 비슷하고, 정치적 견해가 유사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 안전하고 편하다. 괜히 얼굴 붉히며 싸울 일도 없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와 사회는 결코 안전하지도 풍요한 삶을 가져다줄 수도 없다.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과 함께 뒹굴고 부대끼며 사는 것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공공선을 형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언젠는 다른 생각과 의견을 맘껏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이다.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이다. 그리고 이 모든 자부심, 신뢰, 믿음의 근원은 바로 '공감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동의'(agree)보다 '공감'(sympathy)을 요청하고, '합의'(consensus)보다는 '연대'(solidarity)를 배양하는 곳이다. 민주주의는 긴장을 끌어안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 긴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려는 노력이다. 시민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공감 능력,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연대할 수 있는 마음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이

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고집불통에 비상식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 교회가 민주주의의 덕목을 학습하고 배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는 없을까? 매주 전 세대가 어울려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함께 식사하며, 심지어 정치적 이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성경공부를 같이 한다. 달리 보면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연대를 매주 구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사회에서는 절대 말을 섞지 않을 사람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그렇다면 교회는말로 다윈주의를 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는 훈련소라 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나와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차분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며,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조금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함께 조율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이렇게 교회 안에서 건강한 다원주의를 연습했다면, 이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 정말 꿈에 불과한 것일까? **FAITH & LIFE**



**글쓴이 최경환**

대학과 대학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현재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 교육원에서 일하면서 인문학 &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기독교와 정치철학, 공공신학, 본회피, 세속화와 후기 세속화, 기독교 철학 등이다. 저서로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 공공신학과 현대 정치철학의 대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공저), <신데카메론>(공저),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공저) 등이 있다.

# 정치이념의 양극화와 경제 성장\*

강영호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필자는 올해 여름부터 서울대 김병연 교수님, 성균관대 이동원 교수님과 함께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토) 서울 백석대에서 있었던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주제 강연 “정치이념의 양극화와 경제 성장”의 내용은 이 연구의 잠정적 결과들이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한국가 내 정치적 이념 양극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적 이념 양극화를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자료는 198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대략 5년 주기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가치관을 조사한 것이다. 1981년에는 10여 개 국가가 참여했지만, 2017년에 시작한 7차 조사에서는 80여 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 지형을 10점 척도로 조사하고 있어, 특정 국가의 특정 시기 내 응답값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정치적 이념 양극화를 측정할 수 있다. 세계가치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 지형(spectrum)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조사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 사람들은 ‘좌파’와 ‘우파’에 대해 이야기한다. 당신의 관점은 이러한 척도 상에서 어디에 있나요? (1=좌파, 10=우파)”. 정치적 이념 양극화는 국가별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선진국일수록 10점 척도에서 중간값 주위에 응답자들

이 많이 분포하였지만, 저개발국가일수록 상당한 수의 응답자들이 극좌인 1점과 극우인 10점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0년 응답자들의 다수는 극우(10점) 주위에 모여 있었지만, 2018년 조사 결과에서는 극우 응답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중간값 주위에 많이 모여 있다. 분포 모양만으로 판단하자면, 선진국형 분포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정 국가의 정치적 이념 양극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히 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90년 표준편차 값은 1.78인데, 2017년에 2.50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한국의 표준편차 값은 1990년 2.32에서 2018년에는 1.75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적어도 이 자료에 근거하면, 한국은 2018년까지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감소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1인당 GDP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해보았다. 이를 위해, 80여개 국가들의 199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격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인당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국가내 정치적 이념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안을 의미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강영호**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이다.

\* 이 글은 필자의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2022. 10.29. 서울 백석대) 주제 강연 “정치 이념의 양극화와 경제 성장”의 내용을 간략히 인용하고 소개한 것이다.

2022 아트캠프

# 기독교 세계관과 예술

기독교 세계관과 예술을 주제로 아트미션 회원들이 크리스천 예술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청년 작가들에게 아트캠프를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창작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하며 청년작가들을 초대합니다.

## 강의구성

### 정체성에서 재능으로

서성록/ 미술비평, 안동대 교수

### 재능에서 소명으로

리영환/ 신학, 총신대 교수

### 소명에서 비전으로( I )

장지희/ 작가, 안동대 교수  
정경미/ 작가, 아트미션 고문

### 소명에서 비전으로(II)

방효성/ 작가,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회장  
정해숙/ 작가, 흥익루트 회장

일시: 2022년 12월 1일 부터 매주 목요일 (총4회)

오후 8시~10시(2시간)

개최방법: 비대면 줌

훈련구성: 강의+소그룹훈련+과제

주최:아트미션 [www.artmission.co.kr](http://www.artmission.co.kr)



ART MISSION

## Ch-forum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제 4회 기독교시각예술포럼

2022.12.17.(토) 13:00~16:00

필름포럼 2관 (서대문구 성산로527)

1부: 기초강연

심상용(미술비평, 서울대교수) "메타버스, 카인의 우주"

2부: 믿음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season4

\*사전 제작한 인터뷰와 작품소개영상 시사회

인터뷰어: 심상용

인터뷰이: 임춘희(화가)

이삭(사진가)

3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사전 제작한 지식컨텐츠영상 시사회

김희영(미술사, 국민대교수)

"과학기술시대의 예술: 볼 수 없는 원본에 대한 갈망"

안진국(미술비평) "인공지능은 예술을 하는가?"

4부: 질의와 종합토론

사회: 심정아(설치미술가)

질의: 김성희(스페이스캔대표), 성현(필름포럼대표),

정은숙(스토리인스페이스대표),

박춘호(김종영미술관학예실장)

종합토론: 현장토론

주최: ch-포럼 준비위원회  
영상제작: 오레브미디어

유투브채널: ch-forum  
한국기독교시각예술포럼

# 양극화에 갇힌 공동체성과 기독교

## 김선욱 (송실대 철학과 교수 & 학사 부총장)



일시 2022년 11월 4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송실대학교 베어드홀 부총장실(406호)  
인터뷰어 윤현준 (송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사진 & 정리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윤현준** 정치철학자로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가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선욱**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는 실제로 심각하지요. 평범한 시민들이 이를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기란 쉽지 않지만,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싼 외제 차나 고급 차를 길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고급 외제 차와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니, 이를 대비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하기도 하지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내용은 저와는 너무나 먼일인 것 같아 괴리감을 느끼게 되었고, <오징어 게임>의 설정에 대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큰 공감을 느끼게 되었죠. 이런 식의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 내면화되어 양극화 문제에 대해 각성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현준** 그렇다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사회

2022년 세계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소득 상위 10% 계층이 차지한 비중은 1990년대 전반 35%를 밑돌다가 2021년까지 46%로 늘어 미국의 45%를 넘어섰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교육, 종교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터뷰는 우리 사회 지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오랫동안 관련 연구와 현장 활동에 힘 써온 김선욱 교수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그 양극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의 이 양극화 문제는 어떠한 관계와 의미가 있을까요?

**김선욱**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태어났다고 믿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면에서 불평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불평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난 것은 그나마 이 사회가 민주화되고 또 사회 구조를 상당히 민주적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곧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정체성과 본질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이 가르침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기여해 온 바가 큼니다. 이 점이 오늘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윤현준** 교수님은 우리 사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와 공공성>을 번역하셨고 또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명강>, <돈으로 살 수 없

는 것들>을 등을 직접 감수하셨는데요. 이 책들은 왜 인기가 높았을까요?

**김선욱** 마이클 샌델 교수의 사상이 특히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2010년에 나왔을 때부터였어요. 그 시점은 미국의 2007년 리만브러더스 사태 이후, 세계적 흐름을 따라서 우리 사회도 중산층이 약화되고, 대기업은 성장하는데도 중소기업은 총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 전개되었지요. 이때 연구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시민들도 이런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12)의 경우, 우리 사회가 돈이 지배하는 시장사회로 변모하면서 사태의 본질이 돈에 의해 부패하는 문제들을 적절히 지적하였죠. 장기매매가 가능한 사회라면 신체의 존엄성은 질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죠. 이런 질적 변화가 부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정하다는 착각>(2020)을 통해서 능력주의 문제를 다루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샌델은 이 시대가 고민하는 문제를 거대 담론으로 잘 연결해서 풀어가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가진 유교 문화 전통, 특히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종교인이 '정의', '사회', '공동체', '사랑' 같은 거대 담론에 좀 더 익숙한 문화적 배경하고도 잘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윤현준** 교수님께서 '정의', '용서', '자유', '판단' 그리고 '정치와 종교' 등의 주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오셨고, '기운살'(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을 통해서 현장에 맞닿아 행동하시는 그리스도인 지성이시기도 하신데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김선욱**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던 1980년에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한 뒤, 각 경찰서에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구호가 붙었어요. 친구들과 우리나라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를 한참 이야기하다가 도달한 결론이 '정의사회구현'이어서 함께 웃어버렸어요. 전두환이 사용한 구호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말로써 본질을 흐리는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난 10·29 참사에 대해 '사고'나 '참사'나, '사망자'나 '희생자'냐를 가지고 말장난이 있었죠. 참사 직후에 송실대는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하신 모든 분께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학교 미디어 보드에 일주일 내내 올렸어요. 흥미로운 점은, 그 글이 일주일 내내 올려져 있는 것을 마치 정부에 대한 비판인 것처럼 이해한 어떤 분은 "송실대 다시 봤어."라고 하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추모의 글을 정치적 진영 논리로 읽은 것입니다. 말을 통한 의식 조작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대중의 의식을 언어로 조작하려는 시도가 히틀러에 의해 많이 이루어졌어요. 가령 '안락사'라는 말은 히틀러가 같은 게르만 민족 가운데 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자들을 제거하는 사악한 행위를 숨기기 위해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저는 '기운살' 활동을 하면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구호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시민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속의 일에 대해 '정의', '용서', '자유', '정치와 종교의 관계'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회적 책임이란,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지성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신앙적인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현준** 그렇다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어떤 구체적 책임 의식이나 소명의 자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선옥**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이른바 뉴노멀 시대로 급속히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동력은 노동력이나 생산 보다는 IT가 되었고, 이런 사회적 변화는 우리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승자독식이 정당화되며, 계층이동이 지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빛을 던져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리의 문제가 되지요. 그 답이 사실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노숙자에게 필요한 가장 단순한 필요를 채워드리고, 주위의 가난한 이웃에게 겨울에 연탄을 갖다 드리는 등의 선한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시대 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읽고 그에 맞는 처방을 고민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는 빈곤으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미래의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그리스도인 지성들은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까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현준**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교육, 고용의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해지고 또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등 양극화 문제도 부상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법에 될만한 시급한 정책적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선옥** 최근 우리 대학의 수요가족예배에서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즘 보수는 진보를 증오하고, 진보는 보수를 경멸한다.” 딱 현재 모습이지요.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함께 추구하는

데요. 이 둘은 서로 역동적 관계에 있습니다. 함께 하면서도 서로를 제어하는 장치로 작동하지요. 민주주의에는 한 사람 한 표라는 평등 의식이 있고, 자본주의에는 일원에 한 표라는 평등 의식이 있지요. 서로가 지향하는 평등과 자유는 다릅니다. 우리 사회에는 탐욕스럽게 약자를 누르고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데만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탐욕의 세상을 제어하는 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양극화 문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요,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정치는 진영 논리가 너무나 강해서, 그 어떤 주장이든 진영으로 갈라치기를 해버립니다. 이런 때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시민 사회 운동도 마찬가지로 진영 논리에 깊이 함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복지, 기본소득, 토지 공개념 같은 정책적 과제와 연결된 개념들을 논점화시키지 못할뿐더러, 그런 주장이 모두 진영 논리에 휘둘리고 있죠. 이처럼 딱 막힌 상황, 뭔가 막다른 골목을 마주친 상황에서 종교인들,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시민입니다. 이들이 시민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극단적으로 날이 선 대립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 안에 대화를 통한 공존의 장을 열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봅니다. 사실이 단어는 쉬운 단어가 결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적 양극화 상황을 그래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용서’라고 봅니다. 용서 담론을 깊이 묵상할 때 정치적 대치 상태를 열어낼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대립을 화해와 공존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비롯해 우리가 봉착한 많은 문제



를 해결할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현준** 코로나19 이후 대형 교회보다 중소형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양극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해법이 가능할까요.

**김선옥** 교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기독교 공동체 밖이 아닌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해법의 동력은 헌금 같은 물질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와야지요. 종교학자 길희성 선생님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우리의 의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어떤 문제를 풀고 과제를 해결할 때 대상을 향하여 집중하는 의식을 '대상의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자기의식'이라고 하죠.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할 때, 돌아보는 의식과 돌아보아지는 의식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자기의식이 고 후자는 대상의식입니다. 이 둘은 같지만 다릅니다. 같은 자아의 의식이지만 스스로를 교정하고 경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의식인 것이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서 '생각은' 자기 돌아보는 의식이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교회의 양극화 문제의 해법은 결국 같은 말씀 안에서 하나인 교회들이 서로 소통하고 갈등해야만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의 교회들 사이의 소통과 갈등들이 지금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인 교회가,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교회들 사이의 소통을 통해 자기 반성을 스스로 이루어갈 때만, 교회가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해결자가 될 것입니다.

**윤현준** 그리스도인 정치철학자로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양극화 문제 극복과 관련해서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지 못한 것, 즉 주위를 보살피는 일을 나름 잘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어려워지면 교회가 섬길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사회적 통찰력을 갖춘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갖고 교회 내외적으로 섬길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개별 교회 단위를 넘어서는 싱크탱크도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의 깊이와 목양의 전문가들이시지만, 비목회자 전문가들은 세속을 이루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니, 이런 전문성들이 서로 만나 섬길 기회가 활발히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윤현준**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전해 주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사실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지금이 살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1980년대보다는 1990년대가 나았고, 1990년대보다는 2000년대가 나았고, 지금 2022년이 그래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이 시대에 있다고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회적 불평등이나 양극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기후위기도 너무나 촉박한 문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희망적인 꿈을 꾸기가 힘든 사회를 만들어 놓아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싶은 것은, 많이 듣는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MZ 세대나 알파 세대가 자란 환경은 제가 자란 환경과 너무 달라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에 꼰대가 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많이 듣고 좋은 것을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너희 말이 내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런 전형적인 꼰대 태도를 반성합니다. 젊은 세대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화를 좀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써 보겠습니다. FAITH & LIFE

## 신앙과 학문 그리고 삶의 통합

최용준 (한동대 ICT 창업학부 교수, 실행위원)



나는 한동대학교에서 주로 기독교 세계관 및 다른 세계관들, 학문과 신앙의 통합, 성경적 기업가정신 그리고 통일 등을 강의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와의 인연은 1980년대 초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동역회를 알게 되었는데, 웨슬리 Wentworth(Wesley Wentworth, 한국명 원이삼)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도움도 받았다. 미국과 유럽에서 오래 머물며 학업과 사역을 마무리하고 2011년부터 국내에서 동역회를 함께 섬기고 있다. 그동안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금까지도 동역회가 많은 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만큼 성장해왔지만 앞으로 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앙과 학문 그리고 삶을 통합하기 위해 주제 성구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들고 싶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

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표준새번역). 동시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2절 15~16절에 나타난 주님의 모범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울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표준새번역).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은 올바르지 못한 동기에서였지만,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진실한 분’(a man of integrity)임을 인정한다. 물론 아첨하는 말일 수도 있으나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며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본다. 우리도 이 부분

에서 주님을 본받아 세상 사람들이 동역회 회원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표현하는 목소리(voice)에 대해 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분이라고 인정한다. 동역회 회원 대부분은 아마도 가르치는 사역에 종사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주님의 도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동시에 실천적인 분을 보여줄 때 우리의 진정성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실현될 것이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고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시는'(You aren't swayed by men, because you pay no attention to who they are) 분이라고 말한다.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우리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동시에 누구도 의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셨던 주님처럼 사역하려고 노력할 때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를 존중할 것이다.

동시에 필자는 신앙과 학문 그리고 삶을 잘 통합한 사례로 동방박사들을 들고 싶다. 이분들은 천문학자들인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린 신앙인들이었다. 마침내 베들레헴의 별을 보자 그들은 그 멀고 험한 길의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경비를 감수하며 찾아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귀한 예물을 드렸다. 그 후 돌아가서는 분명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분들은 이방인을 대표하여 주님께 경배한 귀한 분들로 동역회도 이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금까지 섬겨오신 동역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더 헌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해외에서도 같은 비전으로 섬기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한다면 우리 사역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님께서 동역회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원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최용준**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B.A),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M.Div), 네덜란드 자유대학교(Drs.), 남아공 포체스트룸대학교(Ph.D, 기독교철학)에서 공부했다. 독일 쾰른한빛교회와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동대학교 '학문과신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응답하는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세계관은 삶이다>, <하나님의 비전 : 교회 분열과 연합의 역사보고서>, <유럽 기독교 지성 운동과 한국의 디아스포라>, <기독교 세계관 강의> 등이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채민석 (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20대 초반 시절,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다. 당시 주변에는 수많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셨고, 그분들의 삶을 지켜볼 수 있었다. 정해진 일과를 마친 후에도 성도들을 심방하고 주말에는 사역으로 더욱 바쁜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실지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 성경 말씀을 따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려는 목회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동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동경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한편,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목회 사역을 업(業)으로 삼으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업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이다. 당시 나는 이러한 고민의 내용을 신앙의 선배에게 물어보고 나름의 해답을 찾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의 기준을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투자한 시간과 직업에 비례한다고 여겼고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각자에게 맡겨진 상황이나 소명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즉 시간이나 직업과 같은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치나 자리나 상황에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민 끝에 깨달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각자가 바쁘고 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와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해결하려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빅데이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오히려 집중력이 분산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있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수많은 내용은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며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요즘 청년 세대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이야기되는 부동산 및 취업과 관련된 논점들은 우리를 더욱더 세상적 문제에만 몰두하게끔 한다.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중독되고, 세상적인 문제에 고군분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사탄의 미혹에 반복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은 우리가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서 신앙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태도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이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도 세상의 온갖 걱정으로 자신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 기계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는 나름의 생활을 잠



시 공유해보려 한다. 우선,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사랑, 나와 이웃 간의 수평적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이며,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6년이라는 석박통합과정 대학원 기간이 매우 길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낀다. 주 전공의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과제 및 업무들로 인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으며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도 존재한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로써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으로써 고백하는 것이 내 대학원 생활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남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해내야 하는 창조의 고통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또한 나의 대학원 생활에서는 선후배가 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잦다. 그때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생각과 일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팀 내의

불화 혹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예수님께 배운 이웃 간의 수평적인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팀원을 업신여기지 않고, 가족 대하듯, 사랑으로써 서로의 견을 공유하고 더 개선된 생각을 도출한다면, 팀 내 갈등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라 생각한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직업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 당연히 모두 각양각색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적인 일에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면, 그 상황이나 결과가 어떻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러한 합심으로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신다고 믿는다. **FAITH & LIFE**



**글쓴이 채민석**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중에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모터의 고장 진단 및 예지 문제'이다.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석박통합과정에 입학했다. 분당 만나교회(기감) 청년이며, 청년부에서 '새가족' 사역을 섬기고 있다. 현재 서울대 기독대학원생 독서 모임 멤버이다.

## 매일 주님 안에서 한결같이 씨름하며 사는 삶

조예성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석사과정)

처음 이 글을 제안받았을 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다.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지라 어떤 내용을 나누어야 할지, 지금 내 삶을 나눌 만한 상황인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미 받았던 은혜를 하나씩 복기하면서 다시 주께로 나아가는 용기를 얻었기에 이 글을 쓴다.

나는 모태 신앙이었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갔다. 그러나 오랫동안 한 번도 주를 영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막연히 힘든 일을 겪을 때 의지할 분, 그냥 막연한 신으로만 생각했다. 초등학교 시절 겪었던 학교 폭력과 부모님의 이혼 문제 등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었다.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웃는 엄마의 모습과 친구들이 나를 다르게 보았던 그 모습 때문이었을까? 나는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하고 인정받는 삶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우상 삼아 살았다.

그런데도 대학입시에 실패했고 서울에서 재수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부했지만, 결국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하였다. 그 당시 모 교회 목사님께서서는 폐인 같던 나에게 새벽기도를 권하여 주셨다. 그래서 교회라도 가자는 마음으로 나갔는

데, 나는 신기하게 그 무렵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으로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격적으로 느껴졌고, 삶의 큰 방향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다. 기쁨이 넘쳤던 2016년 1월,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같은 해 기쁨으로 한동대에 입학했다.

대학 1학년은 은혜 안에서 살고 선교 활동까지 하면서 보냈다. 그러나 군대 입대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방황과 여러 고민 사이에서 다시금 불안함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입대해서도 매일 같이 산책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 또한 군대에서 여느 때처럼 부대 내 도서관에서 <구글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벤 웨이버, 2015)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여 흥미롭게 읽다가 '통계학'과 'C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본래 문과 출신이었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그래서 나는 제대 후 전공을 변경한 복학생이 되었고, 하나님께는 이 공부의 길에 은혜를 부어주셨다. 정말 감사하게 미친 듯이 공부할 수 있었다. 학부생 시절 동안 좋은 학점과 여러 공모전 수상, 논문 실적을 허락해 주셨다. 돌이켜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지만 인간이란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 나는 "잘 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점차 하나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취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항상 "잘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하루하루



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렇게 정신없게 학부 생활을 보내다 4학년이 되면서 대학원 입시를 준비했고, 2021년 8월 카이스트 대학원 면접시험을 보았다. 그런데 나는 이 면접시험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 너무 자신이 없었다. 대학입시에 실패했던 때의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나며 모든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의지할 곳이 없었기에 주님께만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그때 주께서는 “네가 정말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다. 나는 “아멘!”이라고 고백했다. 오직 주께 맡긴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포항공대 대학원 입시용 자소서를 준비하면서 카이스트 대학원 입시 결과를 아무 기대 없이 확인했는데 ‘합격’이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를 여전히 떠나시키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주셨다고 믿는다.

나는 현재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치열한 씨름을 하고 있다. 연구는 여전히 불안하고 삶에서는 죄와 씨름하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가까워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확실하게 경험한 것은 기도할 때, 더 구체적으로는 다니엘처럼 매일 기도하며 죄를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어제나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겨우 석사과정 두 학기를 경험한 입장이라서 대학원 생활이 ‘어떤 것’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에서도 역시 고된 씨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다.

한편,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 과학도들이 세상 소명의 자리에서 연구하다가 점차 그 연구 자체를 위한 연구에 함몰되고 점차 자신의 명예와 돈을 위한 연구에 치중하게 되기 쉽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필자가 연구하는 인공지능 분야는 정말 많은 자본이 오가는 분야여서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 연구 자체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그 때문에 더욱 주님 안에 깨어있어야 한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를 놓고 함께 더 기도하고, ‘내’가 이 연구를 왜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주께서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매일 같이 복기하며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요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숙제를 감당하기 위해 매일 연구실로 출근한다. 출근하면 많은 대학원생이 연구실에 앉아있다. 나를 포함한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다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게 모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넉넉히 누리고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FAITH & LIFE**



**전 조연** 글쓴이 조예성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석사과정 중에 있다. 현재 카이스트 기독교 세계관 동아리 RACS(Research Association for Creation & Science)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는 A.I. 기술의 이해와 적용에 대해 연구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대전의 둔산제일감리교회 청년이다. 매일 주님 안에서 한결같이 씨름하며 사는 평범한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청년이다.

## 교육, 학습, 훈련, 그리고 순종

이경건 (서울대 화학교육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비슷한 현상을 가리키는 다양한 인문사회학적 용어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교육(education), 학습(learning), 훈련(training)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인간이 인간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과 연관이 있고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현상의 서로 다른 부분을 부각하여 드러낸다.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간의 상호 주체성과 인격적인 교류 및 성장을 함의한다. 학습은 소위 학습자 중심의 세련된 교육 담론을 상징하면서도, 과도하게 개인을 주체로 내세워 학습 결과의 책임까지도 학생에게 묻게 될 우려가 있다. 반면 훈련은 철저한 반복 숙달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지만, 과도하게 집단 또는 상급자를 주체로 내세워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흐르게 될 우려가 있다.

최근 필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훈련을 받았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군복무를 하던 중 지난 9~10월에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일이다. 남들 다 가는 군대를 잠깐 다녀온 것이 무슨 대수인가 민망하기도 하지만, 필자에게는 그 의미가 작지만은 않았다. 서른쫓 되어서 훈련소를 다녀왔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2011년에 대학에 입학한 이후 학교와 교회를 2주 이상 비우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께서 필자가 훈련소를 다녀온다는 말에 진심 어린 걱정과 기도를 해주셨다. 책상 앞에만 앉아 있던 사람이 머리를 밀고 군복을 입

고, 단체 생활을 하며 흠바닥에서 구르는 여러 경험들은 참 강렬했다. 그중에서도 눈을 질끈 감고 말았던 기억은, 정훈교육 이후 '장병참여형 교육'이라며 전지에 크레파스, 색연필 따위를 나누어 주고 오늘 배운 것을 4~6명이 조를 이루어 그림으로 표현해보라고 했던 일이다. 나름대로 교육학 박사랍시고 그토록 공부하고 연구했던 협력 학습 이론이 머릿속에서 좌르르 펼쳐졌다. 10대 학생들을 위해 협력 학습 수업 프로그램을 짜던 내가 서른쫓 되어 거꾸로 그 대상이 되었으니, 내가 진행하던 연구에 참여해주었던 학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훈련소 안에서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목상하였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본회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과 메탁사스(Eric Metaxas)가 저술한 본회퍼 목사님의 전기 <Bonhoeffer: Pastor, Martyr, Prophet, Spy>를 읽은 터였다. 또 대학에서 자유로운 20대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 편인 필자로서는 군대에서 통제되는 20대 장병들을 보는 일이 여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이처럼, 훈련소에서의 시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와 캠퍼스라는 터전이 이토록 강력한 체계로 조직화된 군대와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가를 고찰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메탁사스에 따르면, 본회퍼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 역시 "교회란 무엇인가?"였다. 본회



퍼는 영국, 스페인, 스위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독일교회의 현실을 바라보았다. 특히 유니온 신학교의 자유주의적 풍조와 백인 교회는 그를 실망시켰지만, 오히려 흑인 교회에서의 강렬한 예배의 경험이 그를 일깨웠다. 미국에서 흑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일을 본 그는 독일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일의 본질을 직관하게 되었다. 수년 후, 히틀러에 맞서는 고백교회의 리더인 그를 친구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미국으로 보냈으나 그는 26일 만에 그의 조국 교회와 동지들을 생각하다 못해 귀국하고 말았다. 이후 그는 더 본격적으로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하고, 결국 순교하게 된다.

훈련소에서 본회퍼 목사님을 통해 배우게 된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적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신앙생활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본회퍼 목사님의 말씀이, 그동안 꽤 '수동적-소극적'이었던 필자의 신앙관을 '능동적-적극적'으로 바꾸고야 말았다. 그래서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필자는 훈련소 안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었다. 지금 필자는 전에 없이 많이 기도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들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웨슬리 Wentworth(Wesley Wentworth) 선교사님의 귀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늦추어졌다. 감사하게도 선교사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뵙 기회를 얻었다. 홍대입구역 IVP 사무실에서 만난 선교사님은 필자를 반겨주신 뒤, 몇 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질문을 하셨다. "요즘에 어떤 책을 읽고 있니?", "요즘 서울대의 그리스도인 그룹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니?", "너의 전공을 어떻게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킬 거니?",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좋은 책들을 대학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해야 해." 필자는 그가 1965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같은 질문을 해 왔음을 직감했다. 어떻게 한국에 선교사로 오실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20대 때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담담하게 대답하셨던 순간이 떠올랐다. **FAITH & LIFE**



**✍ 글쓴이 이경진**

서울대 화학교육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대 학부 시절 화학교육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전공했고, 서기연(서울대기독교인연합) 대표와 전국기연네트워크 대표를 맡았으며, 대학원 시절에는 서울대기독교대학원생모임 대표와 대학총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섬겼다.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편집인이다.

## 어느 청년의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운동

김영우 (선교단체 <익투스> 설립자 / 감신대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나는 현재 캠퍼스 선교단체 <익투스> 소속으로, 가는 곳마다 이 공동체가 말하는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내가 기독교 세계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대 후반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기초적인 관심은 있었으나 본격적인 관심이 생긴 것은 그 무렵이었다.

그 무렵 나는 다른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후 새롭게 연세대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대학에서는 다양한 가르침을 받을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필요성에 눈을 뜨게 할 만큼 충격적인 상황도 많이 만나게 되었다. 내가 강력히 느낀 바는 대학생 사회가 어떠한 이데올로기의 큰 영향 아래 있다는 인상이었다. 캠퍼스 내 많은 사람이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을 열심히 선포하고 있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성경에 따라 성별을 양성(생물학적 남녀)으로 구분하는 견해나 이성 간의 교제, 결혼을 절대적, 보편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것도 그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당혹스러운 일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조차 이러한 문제에 있어 입장 차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충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무엇에 기초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 눈이 성경에 기초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거기에 기반한 사

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른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랐다. 이 차이는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켰다.

나는 이 충돌과 혼란한 상황 속에서 뭔가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이 반(反)성경적 사조와 힘이 학생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 길을 선포하고 안내하는 활동을 하도록 <익투스>를 창립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뜻을 모은 멤버들이 그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성경에 기초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여기에서 무너지면 아무리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자처한다고 할지라도 즉시 방향을 상실하고 기독교의 옷만 입은 채 신령한 근거가 없는 활동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투스>는 우선 성경에 기초한 예배, 기독교 세계관을 위한 스터디, 세미나, 특정 사안에 대한 직간접적 입장표명 및 행동 등을 전개하게 되었다. 초창기에 우리가 특별히 집중한 것은 성 윤리 문제였다. 그 분야가 성경적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 윤리 세미나를 개최하여 동성애, 성 중독, 바른 교제 등을 다뤄보기도 하고, 이 문제에서 바른 개혁을 위한 투

쟁에 참여도 하였다.

나는 캠퍼스 선교단체 <익투스>를 창립하고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대학을 졸업했다. 그 후 감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공부를 이어가게 되었다. 나는 현재도 <익투스> 활동을 하며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고 있다. 여러 일과로 바쁜 와중에도 이 활동을 포기하지 못하는 까닭은 청년(학부, 대학원) 시절이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새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역을 해보니 이에 대해서 가르치며 배울 수 있는 황금 시기 역시 이 청년 시절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캠퍼스 청년들에게 매달리고 있다. 나는 사실 이러한 사역에 대해 처음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눈을 뜨게 해 주셨고, 그 이후 청년 학생들을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캠퍼스야말로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거치는 거의 마지막 기회의 장소이며, 위로부터의 혁명과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현재 현장의 사역은 주로 예배와 스터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터디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본격화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교재를 선정하여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특별히 성경의 권위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배운다. 우리는 예배와 스터디를 함께 강조하는데, 성경에 기반한 운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다. 특별히 현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통한 구원과 신자 개인의 삶'과 '세상을 향한 관심'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 사회는 정치, 사회적으로 분열이 심각한데, 기독교 진영에서조차 '좌당'과 '우당'로 나누어 다투는 것을 자주 본다. 캠퍼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사역 중에 이러한 문제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종종 보았다. 이 상황에서 우리

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은 '천당' 노선에 서야 한다고 강력히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성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러한 태도, 성경 전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과제를 모든 그리스도인과 회원들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품게 된 소망을 나누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나에게만 작지만 큰 꿈이 있다. 그것은 각 대학으로부터 여러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특히 청년들이 성경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수십 년 내에 엄청난 운동이 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나라, 민족, 세대, 영역(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을 개혁하는 큰 움직임이 될 것이다. 나는 수많은 캠퍼스와 교회에서 그 꿈을 함께 꾸고 움직이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꿈꾸며 기도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FAITH & LIFE



✍ 글쓴이 김영우

경기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취득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취득하였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동료들과 함께 <익투스>를 설립하고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하였다. 지금은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과정 중에 있으며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 중이다.

# 한국 영화가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다루는 법 - ‘발신제한’(2021)과 ‘학교 가는 길’(2021)을 중심으로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 봉준호를 넘어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2013)와 <기생충>(2019) 만큼 현대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은유적으로 잘 묘사한 영화도 없다. <설국열차>에 묘사된 머리칸과 꼬리칸은 극단화된 삶의 모습을 미래의 종말적 상황 가운데서 잘 묘사했다. <기생충>은 지하와 반지하 그리고 최상의 이층 주택이라는 공간의 배열을 통해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빈부 격차에서 오는 갈등과 기생적 공존을 압축적이며 은유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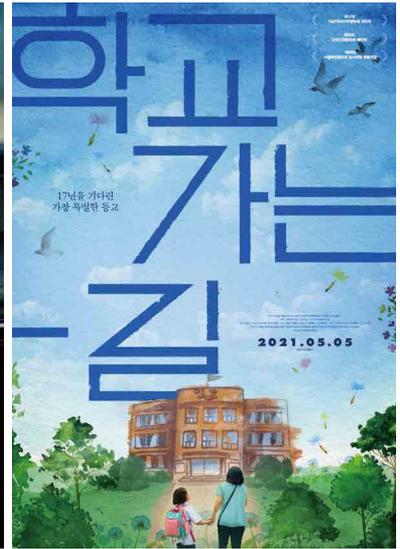
그러나 봉 감독이 묘사한 양극화된 사회의 갈등을 다룬 영화들의 한계도 분명해 보인다. 첫째는 양극화의 기준을 경제(물질)에 맞추고 있는 점이고, 둘째는 갈등이 평화적이며 발전적인 공존으로 변화하기보다는 충돌로 이어져 파국을 맞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봉 감독을 넘어서서 극단의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점을 제시하는 새로운 영화의 출현이 필요함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 양극화 사회의 의미있는 변화를 담은 영화

김창주 감독의 영화 <발신제한>(2021)과 김정인 감독의 <학교 가는 길>(2021)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극단적 갈등을 두 가지 다른 형식으로 보여주었다. <발신제한>은 드라마로 제작된 상업영화인 반면 <학교 가는 길>은 다큐멘터리다. 드라마는 스펀지나 액션 등과 같

은 대중이 선호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사회문제를 부각시키는 장점이 있다. 과거의 시간 속에 잊혔던 문제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그에 비해서 다큐멘터리는 소재주의를 선택한다. 즉 원래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나 문제를 깊이 파고들며 연출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이해를 촉구받는 형식이다.

<발신제한>은 스페인 영화 <레트리뷰션 : 응징의 날>(2015)을 각색하면서 2011년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 버린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입힌 사회성 짙은 영화다. 돈 많은 고객을 관리하는 PB(프라이빗 뱅크) 센터장 성규(조우진)는 두 아이를 자신의 고급 SUV에 태우고 출근하는 길에 테러범(지창욱)으로부터 걸려온 발신 번호 제한표시의 전화 한 통을 받는다. 거액의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동차 시트 밑에 설치한 사제폭탄을 폭발하겠다는 협박 전화는 성규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만다.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자의 단순한 복수극처럼 보이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가해자 성규의 눈물 어린 반성과 용서를 비는 언행이 이루어지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태도가 드러나는 점에 있다. 그것도 자신의 딸 앞에서 고해성사하듯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정직함으로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일은 혹시라도 극단적 갈등에서 입게 되는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1조 원이 넘는 피해액에 3만8천 명이 이르는 서민들의 피눈물



을 훌리게 하였으나 아직도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사26:7)

**양극단의 갈등을 사랑으로 극복한 어머니들**

〈학교 가는 길〉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건립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장애아 학부모들과의 갈등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다. 특수학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아 학부모들과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 혹은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을 하는 지역사회와의 첨예한 대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양극단의 시선을 대변하고 있다.

〈학교 가는 길〉에는 장애아 어머니들이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지역주민 앞에서 무릎 꿇고 사정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 앞에서 몸을 낮추고 머리를 조아리며 어떻게든 이해를 구하려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특수학교 설립보다는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면서 생활에 편리한 의료시설 건립을 찬성하는 지역주민

들의 의견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가 등장했다는 판단은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마 25:40)이라는 예수님 말씀은 남비현상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는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왕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이다. “다툼이나 허영”(빌 2:3)이 아닌 지역사회도 함께 품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타적 존재가 누리는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FAITH & LIFE**



**글쓴이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에서 문화선교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이다. 극동방송의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을 통해 기독교 영화 전파에 힘을 쏟으며 대중강연과 미디어를 통한 문화선교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죽음과 종교〉 〈감성세대의 영화 읽기〉 등이 있다.

# 벌어진 심연과 부드러운 심장

## - 빈센트 반 고흐의 <자장가>에서 배우다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남프랑스 아를(Arles)에 머물던 시절에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는 잦은 병치레와 고갱과의 불화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빈센트는 17C 네덜란드 화가들의 '트로니'(tronie) 전통에 따라 인물화를 즐겨 그렸다.

이런 영향을 받은 작품이 <자장가 - 요람을 흔드는 사람>(La Berceuse, 1889)이다. 그는 아를의 우편배달부 조세프 룰랭(Joseph Roulin)의 아내 오귀스틴 룰랭(Augustine Roulin)을 모델로 이 작품을 제작하였다. 꽃무늬 벽지를 배경으로 흔들의자에 앉은 룰랭 부인은 강인한 어머니요 아내인 동시에 프로방스의 농부이기도 했는데, 룰랭이 몇 푼 안 되는 월급으로 다섯 가족을 부양해야 했으니 발일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했던 것이다. 빈센트는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룰랭과 부인, 세 아이(아르망, 카밀, 마르셀)에게 모두 초상화를 그리는데 관심을 보였고 작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빈센트는 이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새로운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는 꿈을 표현한 적이 있다. "나는 후광으로 상징되던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빛깔에서 뿜어져 나오는 참된 광채와 떨림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영원의 흔적을 간직한 사람들을 그리고 싶구나"(1885.9.2)

고흐는 평범한 농부와 이웃에서 '영원의 흔적'을 찾고자 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인 오귀스틴이 바로 그런 초상화에 어울리는 모델이었다. 빈센트에게 그림은 이웃에게 내미는 사랑의 표시였다. 그는 늘 힘들고 약한 사

람들이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이름 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그려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이다"(1880.9.24)고 다짐한 바 있다. 고흐의 관심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닌 신비한 매력으로 향했다. 그의 인물화가 권력자나 지배층이 아닌 농부와 광부, 직조공, 우편배달부, 노인이나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신념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해준다.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숨쉬로 탄생된 특별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그림의 비밀은 그녀가 잡고 있는 끈에 달려 있다. 그녀는 지금 보이지 않는 요람을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녀가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장엄하고 무한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한다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아침에 잠에서 깬 어린아이의 눈망울과 요람 위에 비친 햇살을 보고 웅알거리거나 소리내어 웃는 아이에게서 바다보다 더 깊고, 더 무한하고, 더 영원한 무언가를 볼 수 있다."(1882.7.2) 이처럼 아이에게 갖는 감정은 각별한 것이었으며 빈센트는 엄마와 아이를 통해 인간관계의 성스러움을 발견하였다.

이 그림에 대해 빈센트는 먼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어부들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 오귀스틴이 잡고 있는 끈이 바로 '위로의 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바다의 선원이 해변



빈센트 반 고흐, 자장가(요람을 흔드는 사람)  
캔버스에 유채, 92.7x73.8cm, 1889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의 여성을 생각할 때 꿈꾸는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1889.3.29) 선원이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그림을 보며 아내를 생각하면 평정심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 것이다.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빈센트에게도 ‘위로의 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감상자 역시 그림을 감상하는 동안 유년 시절 어머니 품속에서 들었던 사랑의 자장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빈센트의 <자장가>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그가 런던에서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웃의 모습을 화폭에 담을 때까지 상존하였던 요인이 있다. 그것은 ‘다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었다. <자장가>에서 그가 들려주는 것은 위로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그가 접한 ‘평범한 사람의 초상’을 어느 권력층 못지않게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웃이 우리가 섬길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

한번은 고흐가 네덜란드 출신의 동료 화가 안톤 반 라

파르트(Anthon van Rappard)로부터 삶의 신조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산다는 것, 곧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 예컨대 불을 피우거나 아이에게 빵 한 조각과 버터를 주거나,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는 것이라네.”

그의 이야기가 거의 모든 방면에 걸쳐 몸살을 앓으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게도 널리 알려지면 좋을 것이다. 우리의 ‘사회적 기관(器官)’의 혈관에는 무서운 ‘증오’라는 이름의 독이 흐르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입장이 다르면 둘의 관계가 틀어지고 돌연 ‘동료’에서 ‘적’으로 바뀌니 말이다. 이런 정도이면 우리가 부드러운 심장으로 살아가며, 우리 사이에 벌어진 심연을 건너는 다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된다.

윌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하나님, 자신, 이웃의 ‘신실함이 왜곡되고 배제’되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 나가는 것, 곧 ‘타자를 품는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자리한 것은 동료 인간을 품음으로써 신실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빈센트의 기독교적 인생관은 ‘타자를 품는 일’, 즉 ‘사랑의 법’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으며 사랑은 ‘관계라는 매개물’을 통해서만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준다.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 포도나무교회 기독교 세계관 프로그램



한준희 (포도나무교회 중고등부 목사)

필자는 있는 힘을 다해 '래디컬'(Radical) 복음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변했다. 그런데 또다시 변했다. 교회에서 변하지만, 다시 세상에서 변한다. 그들의 가장 큰 적은 그들의 안방과 학교와 영화관, 스마트폰 속에 있는 '문화적 독소'라고만 생각해 왔다. 더 전투적인 신앙 교육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독소는 월요일부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의 눈꺼풀에 묻은 채로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 기도할 때 세상에 눈을 감아도, 눈을 뜨면 이 시대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전달된 복음의 '순수성'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적용성'(applicability) 문제라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분명 복음만이 변화의 심장이란 것, 기독교 세계관은 그 복음으로 살아갈 우리의 눈이 된다는 것을 배웠지만, 아무리 심장이 뛰어도, 보지 못하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이 고민이 '기독교 세계관 청소년 교육과정'을 시작하게 하였다. 교육과정은 매주 10주 동안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 이론 강의와 '기독교 세계관 캠프 : 킹덤 익스프레스(Kingdom Express)'로 이어진다.

- 1주 - 철장에 갇힌 사자 풀어주기.
- 2주 - 영역 주권을 선포하라
- 3주 -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진리'
- 4주 - 문화 '위'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 5주 - 에덴을 기억하고, 전쟁중임을 잊지 말며, 천국을 드러내라!
- 6주 - 이 시대의 3가지 '전제(premise)'와의 전쟁
- 7주 - 자연주의와의 싸움
- 8주 -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싸움
- 9주 - 예술로 그리스도 드러내기(메이저 테마, 마이너 테마)
- 10주 - 직업과 노동 : "For the Lord, Of the Lord, To the Lord!"

'킹덤 익스프레스'는 9주간의 이론 후,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마지막 프로그램이다. 캠프 첫날은 커리큘럼의 10주 차 '직업과 노동' 강의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직업적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에 대해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에는 본격적인 '킹덤 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시작은 '에덴 크리에이션'이다. 모두가 여러 가지 과일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연합의 시간을 갖는 도중, 처음 정한 주요 '규칙'을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 학생들에게는 일종의 천로역정이 시작된다. 조별로 5개의 타락 방을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각 방은 타락한 '직업

방, 가정 방, 영화 방, 음악 방, 음식 방'으로 우리 주변과 유사한 문화들을 체험하면서 현재 각자의 세계관을 마주해 보도록 기획했다.

이 체험이 모두 끝나면, '구속 방'에 입성한다. 그곳에서 십자가 구속의 의미에 대해 깊이 배우며 '세상 구속의 도구'로써 다시 5개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그 문화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구속해내기 위한 체험과 훈련, 토론이 일어나도록 기획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복음의 심장만 가진 게 아니라,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오직 복음만이 그들의 삶 이곳저곳에서 보이기를, 또 그 복음적 통치가 이곳저곳에서 드러나도록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FAITH & LIFE**

소감문

## 그리스도인의 책임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세계관,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람들의 철학은 세상의 성공을 이루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열정과 희망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세속적 철학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의미 외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번 포도나무교회 기독교 세계관 캠프를 통해서 인간에게 영원한 의미를 주는 세계관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5개의 '타락 방' 체험을 통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안에서의 모든 행위와 거기서 오는 쾌락과 의미들은 본래 목적과 다르게 변질되었고, 창조주가 만든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 자신만을 위한 행위로 전락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구속 방'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삶의 전 영역을 구속해가는 삶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Arnold Toynbee)는 20세기에 가장 비극적인 일을 기독교의 쇠퇴로 보았다. 20세기에는 세계대전을 비롯해 인권 운동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많았는데, 그는 왜 기독교의 쇠퇴를 가장 비극적인 일로 보았을까? 그 궁금증은 캠프 기간, 신국원 교수님의 특강을 통해서 해소되었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고 단지 주일에 교회를 오고 가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도덕률, 양심, 이 세상의 질서를 책임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의 신앙,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해 더욱 책임감이 생기는 시간이었다.

또한 첫째 날 '직업과 노동'이라는 강의는 진로 고민과 학업 고민을 하는 나에게 많은 진리를 알게 해주었다.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 직업이 우리의 사역자 그 자체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영적 위기의 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예배자의 존재를 넘어 이 세상의 질서를 대리 통치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영적 위기에 있는데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해야 함을 느꼈으며, 이 세상에 영적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교회 사역, 일터 사역, 선교적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함을 더욱 직접적으로 느꼈다. 이제 내 삶을 살아갈 때, 매년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경 전체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겠다고 결단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번 기독교 세계관 강의와 캠프를 통해, 내 자아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귀속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글쓴이 이경찬

포도나무교회 중고등부, 새물결기독교학교 고등학교 2학년

#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4)

## - ‘공공신학’의 원조



19세기 말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칼뱅주의 부흥 운동은 오늘날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직접적인 원천이다. 칼뱅주의는 ‘삶이 곧 종교’(life is religion)라는 원리에 따라 문화를 성경의 진리에 따라 변혁하려는 열정을 특징으로 한다. 그 전통을 되살려내려는 운동의 중심에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있었다. 그는 네덜란드인 평균 신장보다 ‘작은’ 사람이지만 정통 신앙을 회복시킨 영적 ‘거장’이었다. 더 큰 업적은 그 신앙에 함축된 문화 변혁적 세계관을 드러내어 삶을 바꾼 실례를 남긴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 논의도 그 역사를 본받아 삶을 성경의 진리에 더 부합하도록 만들려는 실천적 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을 4회(〈신앙과 삶〉 2022년 5+6월호, 7+8월호, 9+10월호, 11+12월호)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1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 2회에서는 시대정신에 맞선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보았으며, 3회에서는 신(新)칼뱅주의에 해당하는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마지막 4회에서는 오늘날 ‘공공신학’의 원조 격이 되는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을 고찰한다.

카이퍼는 총체적 삶의 체계로서의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의 기틀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았다. 목회자와 신학자로서 역사적 정통 신앙의 회복을 통한 교회 개혁 운동을 이끌어 젊은 나이에 이미 큰 영향을 끼쳤다. 카이퍼는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처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길은 성경적 삶의 원리인 칼뱅주의를 삶의 모든 국면에서 실제적인 규범으로 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과 정치 개혁운동의 기초로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한 것이다.

카이퍼는 목사직을 내려놔야만 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설교, 언론, 교육, 저술을 통해 폭넓은 사회운동에 매진했다. 그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들어서고 반혁명당을 조직한 것도 이 확신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그는 목회, 교육, 언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운동을 통해 총체적 삶의 체계로서의 비전에 따라 사회와 문화를 변혁하려 애썼다.

특히, 당시 중심적 대중매체인 신문을 통해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카이퍼는 일간지 스타트다르트와 주간지 헤르아우트의 편집장으로 40년 넘게 거의 매일 글을 썼다. 기독교 정치 원리를 제시한 〈우리의 계획〉을 시작으로 〈일반은총〉과 〈왕을 위하여〉 등 200권이 넘는 책은 모두 이 신문에 쓴 글



을 주제별로 묶은 것이다. 오늘날 카이퍼는 이른바 ‘공공신학’ 또는 ‘공적 신학’(public theology)의 원조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근래에 12권으로 된 그의 주요 저작이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다.

카이퍼의 ‘공공신학’ 원리의 중심에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 있다. 우주의 주권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기에 모든 권력은 그 분에게서만 나와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사회계약설, 민중주권설, 국가주권설에 대치되는 사상이다. 국가는 죄악을 억제하기 위한 일반은총의 산물이지만 국가에는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권력 남용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그는 하나의 특정 정치 형태를 두둔하지 않는다. 물론, 그는 위정자의 전횡을 막아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의회제

도를 지지한다. 또한 삶의 여러 영역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영역주권 사상에 입각하여 콘스탄티누스적 국교주의를 반대하면서, 교회와 국가가 서로 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한다.

카이퍼는 칼뱅주의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비잔틴의 성 소피아 성당,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 같은 건축물을 남기지 않은 것은 신앙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화려한 예배 양식이나 거대한 건물로 신앙을 표현하는 일을 배격하면서, 오히려 감각적인 형식에서 해방하여 영성을 일깨우는 데 전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술을 교회에서 해방하고 독립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칼뱅주의라고 밝힌다. 이로써 교회의 후견을 벗어나 자체의 원리를 따르는 참된 기독교 예술이 생겨나는데, 이에 대한 좋은 사례로서 풍부한 예술세계를 창조한 렘브란트를 든다.

이처럼 잊혀졌던 칼뱅주의 신앙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이에 기초한 문화적·사회적 활동의 원리를 이끌어낸 것은 카이퍼의 공로임에 틀림없다. 이는 자유주의적인 ‘실천적’ 그리스도인과 경건주의적인 ‘신비주의’ 그리스도인으로 분열되어 인본주의 사상에 대처하지 못하던 당시 교회 현실에 대한 처방이었다. 카이퍼는 학문과 예술 그리고 정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어디에도 없으며, 따라서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 어떤 이원론적 사고도 성경적이지 않음을 역설한다. 나아가, 칼뱅주의의 부흥이 비성경적 이원론의 폐해 및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의 홍수를 막을 대안임을 주장한다. 그의 통찰은 21세기 세속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서도 섬기고 있다.

# 세계관 개념에 관한 신학적 비판 : 칼 바르트의 신학을 중심으로 \*

김진혁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부교수)

18세기 말 독일 관념론 철학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세계관 개념은 어느덧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세계관 개념이 가진 포괄성과 효용성 때문인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학문 활동을 하는 곳에서 세계관 개념이 사용되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세계관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는 현대 복미 복음주의 신학자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에게 영향을 준 19세기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들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다보니 독일과 스위스에서 활동했던 20세기 대표적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가 <교회교의학>에서 전개한 세계관 개념에 대한 신학적 비판은 충실히 소개되지 못했다.

바르트는 세계관을 추상적이고 억압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개념으로 보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바르트의 세계관 비판에 제임스 오어나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같이 오늘날 통용되는 기독교 세계관 개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장로교 혹은 개혁파 성향의 신학자들이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19세기 말 독일의 문화 개신교주의에서 있었던 기독교의 세계관화를 우선적으로 문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르트의 세계관에

대한 비판은 세계관 투쟁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폭력을 정당화했던 독일의 나치 시대,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체제 경쟁을 동서 냉전 시대에 이뤄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바르트의 세계관 비판은 기존의 세계관 개념사 연구가 미처 보여주지 못한 강한 정치신학적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관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은 창조론과 화해론이라는 교리적 맥락 속에서 전개된다. 창조론을 다룬 바르트의 <교회교의학>(III권)이 1940년대 세계대전 중에 집필되었고, 화해론을 다룬 <교회교의학>(IV권)은 1950년대 약화 일로를 걷던 동서 냉전 체제를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시대적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신학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려던 신념에 따라, 바르트는 <교회교의학>에서 세계관에 대한 비판을 특정한 정치적 상황과 노골적으로 연관 짓지는 않는다. 하지만 바르트의 세계관 비판이 전체주의 시대에 세계관이 정치 이데올로기처럼 사용되며 폭력을 정당화하고 부추기던 시기에 맞물려 등장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인간은 ‘세계-내-존재’로서 인간은 세계 전체에 대한 특

\* 이 글은 필자의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2022.10.29, 백석대)의 ‘신학 분과’ 발제 논문인 “세계관 개념에 관한 신학적 비판: 칼 바르트의 신학을 중심으로”를 요약한 것이다.

별한 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세계관이 인간으로서 세계의 일부로서 살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세계관은 주체가 타자를 대하는 태도를 경직화하고 심지어 절대화하려는 특성 때문에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회교의학>에서 바르트가 세계관 비판에서 사용한 기본적인 신학적 논리는 그가 자연신학을 비판하면서도 사용했던 교의학적 주제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 신학계에 잘 알려져 있듯 자연신학에 대한 바르트의 거부는 게르만의 역사와 혈통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통로라던 나치 이데올로기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르트의 세계관 비판 역시 개신교 역사에서 주목하며 볼 만한 정치신학적 모델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바르트는 세계관 개념에 대해 신학자로서 단지 이론적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다. 그는 확실성과 총체성을 추구함으로써 타 세계관과 갈등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는 세계관이 정치·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폭압적 도구로 기능할 위험까지 문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바르트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의 핵심에는 특정한 관점 내지는 세계관에 따른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대한 정당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고 현실화 된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이 있다. 복음은 한 인간의 사상의 틀이 다른 인간의 사상의 틀에 대해 거둔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라는 사실로부터, 바르트는 세계관이 가진 경

쟁적이고 비타협적인 본성에 한계가 있음을 꿰뚫어 보았다. 기독교적 신념과 행동을 연결하고 신앙적 관점에서 여러 학술적 활동을 펼치려는 좋은 의도일지라도 세계관이라는 언어가 과도하게 사용되면, 확실성과 총체성을 추구하는 세계관 개념의 특성상 갈등이 조장될 위험이 있다. 심지어 타자에 대한 조직적 길들이기와 폭력을 정당화하고자 세계관이 옹호되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성서의 가르침이 갈등과 투쟁이 아닌 평화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세계관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조건은 인정하면서도, 세계관에 내포된 위험을 인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르트의 경고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세계관이 가진 매력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신뢰하고 지켜야 할 것은 특정한 형태의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르크스주의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자본주의자’·‘제국주의자’·‘파시스트’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진혁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다. 연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와 영국 런던대학교 히쓰롭 칼리지 등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2013년부터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신학, 윤리, 철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 교회 공동체의 법 이해와 법 준수\*

고세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학연 부학회장)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을 자연법칙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산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규범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과 사람이 순종해야 할 부분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셨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규범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우리 성경은 세상의 법과 다르게 표현하려고, 법률을 뒤집어 율법이라고 쓴다. 그러나 나는 율법이란 말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쓴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실 물과 먹을 만나를 주셨다. 그런 뒤에 하나님의 법으로 십계명과 여러 규범을 말씀하셨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여 죄를 짓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회

복시키는 사랑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법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막에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왜곡된 하나님의 법을 처음 목적으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정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더 높이신다(마태복음 5:17-48).

사도 바울은 여러 사신서에서 하나님의 법을 좋게 말하기도 하고, 나쁘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배경을 보면,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물리적으로 적용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과 태도를 꾸짖은 것이다. 하나님의 법 자체를 비판하지 않는다.

당시에 부패한 가톨릭교회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 이 글은 필자의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2022.10.29. 백석대)의 ‘사회과학분과’ 발제 논문인 “교회 공동체의 법 이해와 법 준수”을 요약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는 행위와 실천을 배제한 것이 아니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 이후에 ‘오직 믿음’이 은혜만을 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한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의 타락한 현실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는다. 루터는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을 써서 삶에서 알고 지켜야 할 여러 교리와 함께 십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을 우리 삶의 보배라고 한다.

아무도 법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법과 사회 공동체의 법이 세상에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뒤에 제사법과 시민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도덕법이다(〈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3장).

교회 공동체에서 계명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나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요한복음 13:34-35)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구약성경에도 이미 많은 계명을 말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계명과 하나님의 법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사랑이다(갈라디아서 6:2; 로마서 13:8-10).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가정,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증거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법을 바라보고, 점검해야 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고세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제주대학교에서 법 공부를 시작하여 고려대학교, 미국 버지니아 대학과 툴레인 대학에서 민법과 비교법을 공부했다. 미국 툴레인 대학에서 법학박사(Ph.D.)를 받았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부학회장과 대전 산성교회(기감) 영어예배 팀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 미로슬라브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과 문화명령\*

김욱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박사수로)

기술의 발달로 4차산업혁명이라는 노동의 위기와 기후 변화라고 일컬어지는 생태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과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라는 항목을 삭제했다. 이렇듯 노동과 생태는 당면한 문제이며, 둘 다 인간의 일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는 사안으로 신학과 기독교 세계관이 응답하고 대화해야 할 주제이다.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성령론과 종말론에 기초한 일의 신학을 통해 지금의 노동 문제와 생태 문제에 답하려고 시도했다.

볼프는 사회주의 체제였던 유고슬라비아 출신 신학자로서 성령과 은사에 관해 강하게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 오순절 신학의 배경에서 시작된 볼프의 신학적 여정은 복음주의 신학을 거쳐 튀빙겐 대학교에서 몰트만(Jürgen Moltmann)으로부터 마르크스(Karl Marx)의 노동관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지도받는 에큐메니칼 신학에까지 이르게 된다. 성령론과 은사에 관한 체형적 오순절 신학은 볼프 안에서 몰트만의 종말론적 삼위일체론에서 도출되는 삼위일체론적 성령론과 만나 새 창조라는 종말론적 주

제로 마르크스의 노동관과 비판적 대화를 하면서, 성령론적 노동관을 형성하게 된다.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은 종말론으로 특징지어지는 성령론을 기초로 '일의 신학'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자유주의-자본주의적 노동관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공산주의적 노동관 그리고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의 기독교적 노동관인 직업 소명설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볼프가 성령과 은사, 종말론과 새 창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령론적 노동관을 구성하면서, 소명과 창조론에 근거한 루터와 칼뱅의 직업 소명설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노동관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문화명령에도 도전을 준다.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 26~28절이나 요한계시록 21장 24~26절의 해석, 일반은총, 문화의 종말론적 연속성 등의 주제와 종교개혁자들의 직업 소명설과 긴밀하게 연결된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이 개신교의 전통적 노동관인 직업 소명설을 비판하며 극복하려는 시도는 기독교 세계관의 전통적 주제 중 하나인 문화명령에도 응답과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2022.10.29, 백석대)의 <새로남청년우수논문상> 수상 논문인 "미로슬라브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과 문화명령"을 요약한 것이다.

볼프는 다음의 4가지 면에서 루터의 직업 소명설을 비판한다. 그리스도인의 신원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 실존인데, 창조론의 시초론적 틀에서 구성된 직업 소명설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종말론적 정체성을 간과한다. 새 창조는 단순히 처음 창조의 회복이 아닌데 직업 소명설은 창조교리의 시초론에서 머문다. 현대의 일이 지니는 유동성과 가변성에 보전과 영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직업 소명설은 조화되기 어렵다. 직업 소명설은 소외와 환경 파괴라는 노동의 병리현상을 다루지 않고, 기존체제의 정당화와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오용되기 쉽다. 볼프는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주제로 일과 노동을 설명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대한 루터의 틀린 해석에 기인한 것이며, 대신에 은사라는 주제가 일의 신학을 구성하는데 적합한 성경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와 같은 직업 소명설에 대한 볼프의 비판과 새 창조의 선행적 경험, 완성될 종말의 현재적 경험을 이루시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로 해석되는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은 문화명령에 다음의 4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첫째, 창조-타락-구속으로 구성되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문화명령이 논의될 때, 문화명령은 종말론과 관련하여 문화의 연속성과 더불어 구속과 완성을 이루시는 종말론의 주체이신 성령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직업 소명설의 핵심 개념인 부르심과 소명은 직업이나 일이 아니라 회심과 그리스도인다운 자질과 연결된다는 볼프의 지적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

이 그리스도를 닮음 즉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의 보편성을 말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소명론은 거룩함으로의 보편적 소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명령은 기존체제의 정당화와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변혁과 식별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명령은 인간만의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협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구원의 물질성과 총체적 구원을 설명하면서, 피조 세계의 보호를 위해 확장되어야 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욱

성공회대 조직신학(성서해석학) 박사과정 중이다. 서울대 윤리교육과 학부와 성공회대, 장신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조직신학과 영성신학을 공부했다. 서울대기독교연합(서기연) 중앙위원단을 지냈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력회 정회원이다. 현재 길고양이 8마리와 함께, 편백나무, 음나무, 꾸지뽕나무 18000 그루를 키우며 산다. 경기도 하남시 길벗교회(기침) 전도사이다.



#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이모저모

주제 : 양극화에 갇힌 공동체성과 기독교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가 지난 10월 2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석대학교 (서울) 교육과 10층 아트홀(온, 오프라인)에서 ‘양극화에 갇힌 공동체성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있었다. 마침 팬데믹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하여 전처럼 현장에는 많은 이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시의적절한 주제강연 논문 3편과 패널토의, 그리고 대학원생 분과 3편을 포함 교수일반부 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오전(10:00~12:00)에는 대학원생부 발표논문 중 김옥(성공회대 조직신학 박사과정) ‘미로슬라브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과 문화 명령’이 <새로남청년우수논문상>에 선정되어 장학금(50만원)과 상패를 수상하였다. 오후 첫 순서(1:00~1:30) 개회식은 서나영 박사(백석대 강사)의 사회로, 박문식 교수(학회장/ 한남대 기계공학과)의 개회 인사, 박찬호 교수(백석성신아카데미 부총재)의 환영사, 손봉호 교수(동역회 명예 이사장)의 축사, 신국원 교수(동역회 이사장)의 개회기도, 고세일 교수(연구부학회장 / 충남대 로스쿨)의 연구윤리교육이 이어졌다.

두 번째(1:30~3:30)는 주제강연과 패널토의 시간이었다. 강영호 교수(숭실대 경제학과)의 ‘정치이념 양극화와 경제성장’,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부)의 ‘자유민주주의와 교회정치’, 김성원 교수(서울신대 조직신학)의 ‘한국 사회 양극화와 기독교의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의 주제강연과 토론, 그리고 주제 강연자 전원이 함께 단상에 배석하여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패널토의 시간이 있었다. 세 번째(3:30~6:00)는 분과별 논문발표회였는데, 경제/경영, 인문학 분과, 신학 분과, 사회과학 분과, 세계관 분과, 캠퍼스 선교 분과, 젠더 이데올로기 분과, 공연예술 분과 등 총 8개 분과 30개의 논문발표와 논찬, 그리고 토론의 시간이었다. **FAITH & LIFE**



박문식 교수(한남대 교수)-기학연 학회장  
개회인사



박찬호 교수(백석성신아카데미 부총재)-환영사



신국원 이사장(송신대 명예교수)-개회기도



김육(성공회대 박사과정)-청년논문상



분과발표회(신학분과)



손봉호 명예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축사



점심시간 간담회



주제강연을 마치고



웨슬리 웨트윈스 선교사-마지막 동역



고세일 교수(충남대 로스쿨)-연구유리교육



서나영 박사(백석대 강사)-개회식 사회



패널토의(이국운-강영호-김성원)-질의문답



강영호 교수(숭실대 경제학과)-주제강연(1)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부)-주제강연(2)



김성원 교수(서울신대 조직신학)-주제강연(3)

## 2022년 임시 이사회 간담회 개최

일시 : 2022년 11월 10일(목) 8:00 pm / 장소 : 사무국 Zoom 회의실

안건 : 실행위원장, 학회장 임기만료에 대한 후보 선출의 건

참석 : 10명 이사 중 9명 참석

##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개최(온·오프라인)

주제 : "양극화에 갇힌 공동체성과 기독교"

일시 : 2022년 10월 29일(토)

장소 : 백석대학교(서울캠퍼스) 교육관10층 아트홀

주제강연 1 :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 / 이국은 교수 (한동대 법학부)

주제강연 2 : 정치 이념 양극화와 경제성장 / 강영호 교수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주제강연 3 : 한국사회 양극화와 기독교의 삼위일체적 공동체성 / 김성원 교수 (서울신학대 신학과)

대학원생 분과 : 1분과 (세계관 분과),

일반 분과 : 8분과 (경제·경영, 인문학, 신학, 사회과학, 세계관, 캠퍼스선교, 젠더이데올로기, 공연예술)

## 10.29 참사 공동기도문

10.29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이번 참사로 고통을 겪는 모든 분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의미의 공동기도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 [미디어팀] 동영상 작업

1. 웨슬리 Wentworth 환송 예배 동영상 작업완료(웹진으로 발송 예정)
2. 39회 학술대회 주제강연 동영상 작업완료(웹진으로 분할 발송 예정)

## 등재 학술지 <신앙과 학문> 27권 4호 (2022년 12월 31일) 발간 준비

13편의 논문이 투고되었고, 현재 논문 심사 진행 중이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김태환(명지대 교수), 문준호(코아시아옴닉스 연구위원)

###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사람과삶 대표), 김예원(MEV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문준호(코아시아옴닉스 연구위원),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황혜원(청주대 교수)

###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회회장 고세일(총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회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회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오민용(스마투스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경민(전남대 교수, 전기공학),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곤(한동대 교수, 국제어문학), 신응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Paul Lim(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 **VIEW**(전성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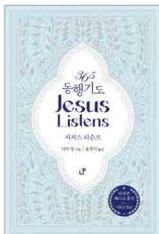
1)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기 바란다.

▶ **CTC**(유경상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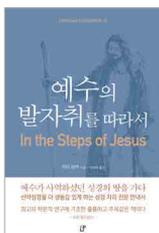
- **어린이 교육** : 온오프라인 기독교세계관학교인 '하이세 아카데미'가 9월부터 2학기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를 진행 중에 있다. 11월 5일(토)에는 가평 필그림하우스에 있는 천로역정 공원에서 100여 명의 가족들과 함께 현장학습을 가졌다.
  - **지도자 교육**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제를 공부하는 '3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22명)과 어린이세계관교육을 준비하는 '2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9명)이 9월부터 개강하여 진행 중에 있다.
  - **부모 교육**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서 '기독교세계관으로 그리스로마 신화 읽기'를 마치고, 9월부터는 '기독교세계관으로 천로역정 읽기'가 진행 중에 있다.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시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 **대학생 교육** : 아신대학교 '기독교 세계관과 코칭' 수업을 진행 중에 있다.
  - **교회와 함께 하는 기독교세계관 교육** :
    - a. 삼일교회(송태근 담임목사)에서 1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를 종강했다.
    - b. 성광교회(남세주 담임목사)에서 2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미디어가 뭐예요'를 종강했다.
- \* 문의/신청 : CTC 사무국(010-3673-8439) &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 바란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365일 동행기도 지저스 리스너**〉 사라 영 지음 | 윤종석 옮김 | 424면 | 18,000원 | CUP  
**빛나는 하루를 여는 365일 기도**  
**우리 기도를 듣기 좋아하시는 주님과의 즐거운 관계를 선물한다!**

영성 사역자 저자는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소명으로 여기며, 그 결실을 책으로 나누어, 많은 유익을 끼쳤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피터 워커 지음 | 박세혁 옮김 | 528면 | 25,000원 | CUP  
**예수가 사역하셨던 성경의 땅을 가다**

신약성경을 더 생동감 있게 하는 성경 지리 전문 안내서  
 역사와 지리, 고고학을 탁월하게 융합한 최고의 성경 지리 안내서  
 성경을 시공간 속에서 더 입체적으로 읽게 하는 흥미진진한 참고서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 (2022년 9월, 10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2년 9월	2022년 10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2년 9월	2022년 10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2,670,000	670,000	인건비	일반급여	5,116,600	5,100,000
	임원회비	650,000	550,000		기타급여	1,300,000	400,000
	일반회비	4,310,000	4,220,000		소계	6,416,600	5,500,000
	기관후원금	3,200,000	3,1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435,570	388,224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225,470	179,267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7,660	108,000
	VIEW후원금	1,115,000	1,135,000		소모품비	990	0
	기타후원금	0	0		식비	302,250	325,600
	월보구독료	413,000	393,000		수선비	0	0
	학술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792,430	792,43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퇴직연금	234,030	234,030
	기타	385	0		교육비	0	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121,000	121,000	
			기타(지급수수료)		145,726	141,407	
소계	12,418,385	10,128,000	소계	3,170,126	3,194,958		
기타수입	일반이자	6,244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155,045	1,105,265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1,214,770	1,164,990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574,722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1,210,74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0
	예수금	409,000	431,000	소계	0	3,785,462	
				기타	세금	37,360	37,360
			잡비		300	2,400	
소계	415,244	431,000	소계		37,660	39,76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199,800	0
	소계	0	0		소계	199,800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60,000	16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1,370,000
	학회행사수입	400,000	880,00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519,20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103,100	881,20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인쇄비	0	3,127,676
	학술지계재료	3,370,000	920,000		학술지발송비	0	803,640
	저작권료	1,695,135	0		학술지심사료	0	990,000
	학회기타수입	0	1,300,000		학회기타	0	65,100
	소계	5,625,135	3,260,000		소계	103,100	7,756,816
전월 미수금	전월 CMS 입금	1,033,630	912,065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 미수금	912,065	946,625
	전월 이니시스 입금	130,000	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0	0
	소계	1,163,630	912,065		소계	912,065	946,625
당월 수입액		19,622,394	14,731,065	당월 지출액		12,054,121	22,388,611
전월 이월액		36,344,068	43,912,341	차월 이월액 (잔액)		43,912,341	36,254,795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회원후원

(2022년 9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새별, 김성욱, 김성호, 김정연, 김형근, 김희원, 생명의강, 손영일,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택,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허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정명, 김정심, 김태영,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윤종선,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연우,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박성태, 방성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세일, 고용재, 고철웅,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근배, 김남진, 김노동,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석,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은,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균, 김재완, 김재정, 김경모, 김정준, 김정철, 김경호,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빈, 김희선,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일, 오상근, 모아론, 문재환, 박계호, 박능안, 박동현, 박미경, 박상희, 박승호, 박시은, 박안나, 박원근,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정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선정,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택,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상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성희,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해민, 염동찬,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대, 유영준, 유재은, 유해우, 윤상선,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직, 이길형, 이노윤,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환,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선근,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연, 이시영, 이신영, 이아름, 이연구,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윤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선,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은주,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영수, 정현주, 정희우, 정웅수, 정재선,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성욱,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우영, 조창희, 조현우, 조희진,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은정, 최종민, 최한민, 최현식, 최혜정,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동빈,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요섭, 홍정석, 홍종인, 홍핀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수, 1만5천 Miya Toshiko, 김선하, 김준원, 박정호, 2만 강광란, 김보경, 김성규,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경호, 김태진, 민민호, 박기모, 박홍식, 빛과소금교회,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연우, 이종훈, 장인석, 정훈, 채기현, 최용성,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3만 강진구, 김경민, 김동원, 김두환, 김방용, 김애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화,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운, 우병봉, 5만 강다영, 김영주,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손정엽,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상민, 이원삼,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한윤식, 6만 석종준, 송승철, 7만 방은영, 최태연, 10만 김미영, 박영주, 송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정연, 12만 강수영, 김민철, 박문식, 심상욱, 15만 최현일, 30만 박동열, 200만 조성표,

계 9,328,000원

##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재교회, 다운공동체교회, 새연약교회, 일원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김기현),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횡동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3,250,000원

전체 12,578,000원

## 회원후원

(2022년 10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새별, 김성욱, 김성호, 김정연, 김형근, 김희원, 생명의강, 손영일,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택,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허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정명, 김정심, 김태영,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윤종선,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연우,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박성태, 방성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세일, 고용재, 고철웅,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근배, 김남진, 김노동,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석,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은,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균, 김재완, 김재정, 김경모, 김정준, 김정철, 김경호,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빈, 김희선,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오상근, 모아론, 문재환, 박계호, 박능안, 박동현, 박미경, 박상희, 박승호, 박시은, 박안나, 박원근,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정은,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선정,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택,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상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성희,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해민, 염동찬,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대, 유영준, 유재은, 유해우, 윤상선,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직, 이길형, 이노윤,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미경,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환,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선근,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연, 이시영, 이신영, 이아름, 이연구,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윤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선,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영수, 정재선, 정진우, 정현주, 정희우,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성욱,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우영, 조창희, 조현우, 조희진,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은정, 최종민, 최한민, 최혜경,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동빈,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요섭, 홍정석, 홍종인, 홍핀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수, 1만5천 Miya Toshiko, 김선하, 김준원, 박정호, 2만 강광란, 고선욱,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경호, 김태진, 나영진, 류진호, 박기모, 박홍식,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연우, 이종훈, 장인석, 정훈, 채기현, 최용성,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두환, 김방용, 김애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화,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운, 우병봉, 5만 강다영, 김영주,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손정엽,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상민, 이원삼,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한윤식, 6만 석종준, 송승철, 7만 방은영, 최태연, 10만 김미영, 박영주, 송봉호, 신국원, 이대경, 장수영, 장정연, 12만 구아름, 김민철, 박문식, 15만 최현일, 20만 박동열

계 7,138,000원

##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재교회, 다운공동체교회, 새연약교회, 일원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김기현),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3,150,000원

전체 10,288,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편집위원 소개

<b>발행인</b>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b>편집장</b>	신국원	충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b>편집위원</b>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겐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b>편집실무자</b>	석종준	사무국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29 참사 공동기도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태원 참사를 아파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 다시 비극적 참사로 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의 주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단지 애통해 하는 것뿐임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들을 애도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느끼며 애통합니다. 이번 참사로 심신의 고통을 겪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젊은이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생을 거두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통환을 느낍니다. 이들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참사의 책임을 국가의 공무원에게만 돌리지 않고 희생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반성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희생당하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총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교회와 기성세대가 이 땅의 젊은 세대의 생명과 미래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돌보게 하옵소서. 그들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그들의 영혼과 육체 모두 안전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위험을 분별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이 갖추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가 젊은이들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삶에 지쳤을 때 누구라도 편하게 찾아와 쉴 수 있는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소망을 회복하는 치유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갖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